

주간 통일정세

2016-34

Contents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내용	
정치	8.20	영국 北대사관, 주차 과태료 3억원 미납...중고품 되팔기도(연합뉴스) 北리수용, 앙골라 집권당 대회 축하연설...친선관계 확대(연합뉴스)	
	8.22	北 대외경제상에 김영재 전 주러시아 대사 임명(연합뉴스) 北 TV, '김일성 빨치산 동료' 오백룡 소개편집물 재방(연합뉴스) 자유북한방송 "北대남·해외공작기구, 당 소속으로 환원"(연합뉴스) 北, 선군절 앞두고 "군사력 담보돼야 경제강국 건설" 주장(연합뉴스)	
	8.23	[단독] 김정은, 장성택 흔적지우기 집착...트라우마에 시달려(연합뉴스) 北 25세이상 외교관 자녀 소환령...태영호에 아들만 둘(연합뉴스) 北, 청년동맹 대회 앞두고 김정은 향한 충성 독려(연합뉴스)	
	8.24	北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 나미비아 도착(연합뉴스) 北, 인민군 각 군단 산하에 '핵 배낭' 부대 신설(자유아시아방송) 북한, 내부 균열 속 中접경 곳곳서 토목사업...체제 견제 과시(연합뉴스) 北, 선군절 보고대회서 "공격명령만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8.25	北 김정은 "SLBM 시험발사, 성공 중의 성공" 선언(연합뉴스) 北 노동신문, SLBM 시험발사 사진 24장 공개(연합뉴스) 北 TV, SLBM 발사 영상 공개(연합뉴스) 北, 선군절 맞아 김정일 띄우기...국보 중의 국보(연합뉴스)	
	8.26	김정은 'SLBM 2~3발 쏠 잠수함 2018년까지 만들라' 지시(연합뉴스) 北, 23년 만에 청년동맹 대회 개막...수령옹위 투사로 키워야(연합뉴스) 北, 올해 UFG 연습 대응수준 높여...'특별경계 1호' 발령(연합뉴스) 北, 평양시 강동군 군사훈련장 확장중...탱크훈련장(연합뉴스)	
	경제	8.23	北국경경비대 식량 부족...최소 권장량의 30~40% 섭취(연합뉴스) 北, 평양국제상품전람회 다음달 5~8일 개최(연합뉴스)
		8.24	북한 무역 '흔들'...중국, 대북 철광석 수입 급감(연합뉴스) 北, 스위스시계 확보 어려워져...석 달째 수입 전무(연합뉴스) 中, 북중접경서 무관세 '호시무역' 확대 추진...제재 이완 조짐(연합뉴스) 中 7월 대북 수출 올해 최대폭 '뚝'...전년比 27.6%↓(연합뉴스)
		8.21	대북제재 6개월...北외관 변화없어 보이니 주민은 노동 총동원(연합뉴스)
	사회 문화	8.21	대북제재 6개월...北외관 변화없어 보이니 주민은 노동 총동원(연합뉴스)

	8.23	北, 노트텔 물수 조치...김정은 등장 퇴폐영상 유포 때문(연합뉴스) 북한 주민의 주변국 호감도, 中·韓·러·日·美 순(연합뉴스) 北주민 휴대폰·PC 이용 감소...사상통제 강화 여파(연합뉴스)
	8.24	김정은 핵·경제 병진노선, 주민 지지도 못받아<탈북민 조사>(연합뉴스)
	8.25	北간부, '백두혈통의 대는 이미 끝났다'(자유아시아방송)
	8.26	北병사들, 북중접경 단둥 침입해 당나귀고기 훔치다 총격받아(연합뉴스)
	8.20	美CSIS "北김정은, 한미훈련 비난해 체제결속 수단으로 활용"(연합뉴스) 北, 美 '핵 선제 불사용' 정책에 "음흉한 술책" 비난(연합뉴스) 美 성김 후임 대북정책 특별대표에 조셉 윤 말레이대사 검토(연합뉴스)
	8.21	北, 중앙아 공관 폐쇄·서방거점 핏과 마찰...전방위 고립양상(연합뉴스) IAEA, 북한 영변 재처리시설 재가동 흔적 여러개 확인(연합뉴스)
	8.22	美전문가, 외교관 탈북으로 北재정위기 가속화 가능성(연합뉴스) 중국, 北 재처리 주장에 "한반도 비핵화" 강조(연합뉴스) 입북강철교 재보수공사 연기...北이 연기요청한 듯(연합뉴스) 북한, 내달 러 극동 '동방경제포럼'에 대표단 보낼까(연합뉴스)
	8.23	美CSIS "남북 비정규전 전력, 한반도 불안정 야기 우려"(연합뉴스) 아베, 北 SLBM 日방공식별구역 낙하는 처음...용서 어려운 폭거(연합뉴스) 서방 나선특구 취재단 방북 취소...북한이 꺼려(자유아시아방송) 주한 우크라이나대사 "핵포기한 우크라이나, 北에 사례될 것"(연합뉴스) 美SIS "北, 올해 핵무기 2~4개분량 플루토늄 재처리"(연합뉴스)
외교 국방		美정부, 을지연습은 연례 방어훈련...北 긴장완화 조치 취해야(연합뉴스) 美 국무부, 북한 여행경보 3개월마다 갱신키로(연합뉴스) 美국무부, 北 판문점 지뢰매설에 "역내 긴장만 고조" 비판(연합뉴스) 中 왕이 외교부장, 北 SLBM 발사 바람직하지 않다(연합뉴스) 北 "미사일 발사는 자위적 조치, 日 경계망동 말라"(연합뉴스) 日 "北SLBM 발사 안보리 결의 위반"...아베 '만전 대비' 지시(연합뉴스)
	8.24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서 北미사일 대응·지역협력 방안 거론(연합뉴스) 독일, 타우리스 한국 판매는 합법...北 주장 반박(연합뉴스) 비동맹 형제국은 옛말...北과 거리두는 동남아 우방들(연합뉴스) EU "북한, 미사일발사 중단하고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해야"(연합뉴스) 北, 새벽 SLBM 1발 발사...합참, 500km비행·日방공식별구역 낙하(연합뉴스) 외신, 北 SLBM 발사 긴급보도...기술진전 주목·핵위협 새 국면(연합뉴스) 북한 SLBM 고각으로 발사...정상각도면 사거리 1천km이상(연합뉴스)
	8.25	美 백악관, 北 미사일발사에 "추가제재 가능성 배제안해"(연합뉴스)

	주일 美해병대사령관 연평도 시찰...北 도발하면 함께 싸울 것(연합뉴스)
	中언론, 한중일 회의서 '중국, 北핵개발 반대' 1면 톱 보도(연합뉴스)
	안보리, 北 SLBM발사에 긴급회의...반기문, 깊은 우려(연합뉴스)
	美전문가 "北, 신포급보다 더 큰 미사일탑재 잠수함 개발중"(연합뉴스)
	北 언급한 '전략잠수함'은...SLBM 3발이상 장착·3천급 유력(연합뉴스)
8.26	美 北SLBM 규탄 언론성명 초안 안보리 이사국에 회람(연합뉴스)
	독일, 北 SLBM 시험발사 강력 비판...국제고립 가져올 뿐(연합뉴스)
	38노스 "北, 동창리 로켓발사장 경비 강화"(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6. 8. 23.

■ [단독] 김정은, 장성택 흔적지우기 집착…트라우마에 시달려(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2013년 12월 반당·반혁명 종파행위 및 국가전복음모 죄로 처형된 고모부 장성택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23일 알려짐.
- 북한 사정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김정은은 장성택이 관여한 시설의 명칭으로 많이 사용되는 ‘대동강’, ‘해당화’가 들어간 시설에 과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지난 6월에는 평양 용성구역에 있는 ‘해당화김치공장’을 시찰하던 중 돌연 불쾌해 하며 해당화가 들어간 시설은 이름을 모두 ‘류경’으로 바꾸라고 지시했다”고 밝힘.
- 대북 소식통은 “이처럼 김정은의 장성택에 대한 트라우마는 도를 넘고 있는데 이제는 장성택과 전혀 관계없는 곳을 시찰하다가도 수행 간부들에게 갑자기 ‘장성택 놈이 음흉한 방법으로 장군님(김정일) 지시를 관철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격분하는가 하면 ‘어디에 가보아도 장성택과 당 행정부 것들이 뻗치지 않은 곳이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다”고 덧붙임.

2016. 8. 25.

■ 北 김정은 “SLBM 시험발사, 성공 중의 성공” 선언(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24일 실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북한명 북극성) 시험발사에 대해 “이번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 발사는 성공 중의 성공, 승리중의 승리”라고 말함.
- 김정은은 SLBM 발사를 현지지도한 자리에서 “오늘 발사한 탄도탄의 시험 결과를 통하여 우리가 핵공격 능력을 완벽하게 보유한 군사대국의 전열에 당당히 들어섰다는 것이 현실로 증명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함.
- 김정은은 현재 진행중인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엄중 경고하면서 “이제는 미국의 핵패권에 맞설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을 다 갖춘 조건에서 일단 기회만 조성되면 우리 인민은 정의의 핵마치(망치)로 폭제의 핵을 무자비하게 내려쳐 부정의의 못이 다시는 솟아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함.

- 이번 시험발사에는 리병철, 김정식, 정승일 등 당 중앙위 책임일꾼들과 국방과학연구 부문 일꾼들이 현장을 방문한 김정은을 맞았다. 김정은은 발사가 끝나고 참여한 해군 장병들과 기념사진도 찍음.

2016. 8. 26.

■ **김정은 'SLBM 2~3발 쏘 잠수함 2018년까지 만들라' 지시(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인 2018년 9월 9일까지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관을 2~3개 갖춘 신형 잠수함을 만들라는 지시를 했다고 도쿄신문이 26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노동당 군수공업담당 간부에게 이런 지시를 했다는 이야기를 북한 국방부문 관계자에게서 들었다고 북한 소식통이 밝힘.
- 이 신문은 SLBM을 발사하려면 육상발사, 수중 발사, 탄두 비행 기술, 탄두를 노린 대로 쏘는 유도기술의 4단계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번 시험으로 북한이 3단계에 해당하는 탄도 비행기술을 확보한 것은 확인됐으나 마지막 단계인 유도기술에 달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임.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6. 8. 22.

■ **리수용, 앙골라 집권당 대회 축하연설...친선관계 확대(연합뉴스)**

-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앙골라의 집권 여당인 앙골라인민해방운동(MPLA) 7차 대회에서 축하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앙골라인민해방운동 제7차 대회가 17일부터 20일까지 수도 루안다에서 진행되었다”며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노동당대표단이 앙골라인민해방운동 제7차대회에 참가하였다”고 전함.
-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리 부위원장은 첫 방문지인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방문을 마치고 지난 16일 앙골라 수도 루안다에 도착함.

■ **北 대외경제상에 김영재 전 주러시아 대사 임명(연합뉴스)**

- 북한의 외자유치와 대외경제협력을 총괄하는 대외경제성의 수장인 대외경제상에 김영재(64) 전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가 임명됐다고 러시아 관영 매체 스포트니크가 22일 보도함.

- 스푸트니크는 “(관련 소식은)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에 게시됐다”며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김영재 전 대사의 임명을 축하했다”고 전함.
- 한편,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대외경제상을 맡았던 리룡남은 지난 6월 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내각부총리에 오름.

2016. 8. 23.

■ **北 25세이상 외교관 자녀 소환령...태영호에 아들만 들(연합뉴스)**

-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최근 해외 주재 외교관의 자녀 가운데 25세 이상인 경우 본국 송환령을 내렸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23일 전해짐.
- 국회 정보위원회의 복수 소식통은 “국정원으로부터 그 같은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망명한 것이 그 이유 때문인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함.
- 이 관계자는 “그런 소환령이 있었다고 해도 태영호 영국 공사의 망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그 정도의 고위직이 자녀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힘. 이 관계자는 이어 “태 공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결심을 하고 시기만 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함.
- 한편, 국정원은 유럽에서 북한 노동당 자금을 관리하던 주재원이 수천억 원을 들고 잠적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부인했다고 정보위 관계자들이 전함.

2016. 8. 24.

■ **北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 나미비아 도착(연합뉴스)**

-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리수용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앙골라에 이어 세 번째 방문지인 나미비아에 도착했다고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24일 보도함.
- 방송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노동당 대표단이 나미비아 공화국을 방문하기 위해서 수도 빈트후크에 도착했다”고 전함.
- 앙골라 인민해방운동 대외관계부상과 앙골라 주재 북한 대사가 비행장에서 대표단을 전송함.

다. 공식행사

2016. 8. 26.

■ 北, 23년 만에 청년동맹 대회 개막…수령옹위 투사로 키워야(연합뉴스)

- 북한은 23년 만에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하 청년동맹) 제9차 대회가 열리는 26일 청년 세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들을 ‘수령 결사옹위의 투사’로 키워내야 한다고 독려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은 오늘의 시대정신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모든 청년들을 백두산영웅 청년돌격대원들과 같은 훌륭한 청년들로 키우는 것은 당과 수령의 청년중시 사상과 영도 업적을 끝없이 빛내며 혁명을 보위하고 전진시키는 중대한 사업”이라고 밝힘.
- 청년동맹은 만 14세부터 30세까지의 청년 학생층이 의무 가입하는 북한 최대의 청년 근로단체이자 사회단체로 약 500만 명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짐.

라. 주요 기관 행위

2016. 8. 20.

■ 영국 北대사관, 주차 과태료 3억원 미납…중고품 되팔기도(연합뉴스)

- 한국으로 귀순한 태영호 공사가 있던 영국 런던 주재 북한대사관이 영국 정부에 3억원에 이르는 불법 주차 과태료를 미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20일(현지시간) 보도함.
- 이곳의 한 북한 외교관은 중고 인형을 사 세탁한 뒤 되파는 '부업'을 했다는 증언도 나오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외화벌이 압박을 받는 북한 외교관들의 생활고 실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
- 텔레그래프는 이날 2015년 영국 외무부 자료를 인용해 북한 대사관이 20만 파운드(약 2억9천만원)가 넘는 불법 주차 과태료를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함.

2016. 8. 22.

■ 北 TV, ‘김일성 빨치산 동료’ 오백룡 소개편집물 재방(연합뉴스)

-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빨치산 동료인 오백룡 전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사부장에 대한 소개편집물을 4개월 만에 재방송함.
-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귀순한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의 부인인 오혜선이

오백룡 일가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이번 방영 배경에 관심이 쏠림.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22일 “적어도 오혜선이 오백룡과 가까운 촌수의 친인척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약, 가까운 촌수의 친인척 관계라면 북한이 내부 결속에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역으로 과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함.

■ 자유북한방송 “北대남·해외공작기구, 당 소속으로 환원”(연합뉴스)

- 북한이 2009년 인민군 정찰총국으로 통합시켰던 ‘35호실’ 등 노동당 대남·해외 공작 기구들을 당 소속으로 환원시킨 것으로 전해졌다고 대북매체인 자유북한방송이 22일 보도함.
- 북한 내 소식통은 이 매체에 “과거 인민군 정찰총국으로 통합시켰던 노동당 대남·해외 공작기구들이 원상 복귀했다”고 말함.
- 앞서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후계자로 내정된 직후인 2009년 2월, 기존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국과 노동당 산하 작전부, 해외공작기관인 35호실 등 기관을 ‘정찰총국’으로 개편함.

2016. 8. 23.

■ 北, 청년동맹 대회 앞두고 김정은 향한 충성 독려(연합뉴스)

- 북한은 23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하 청년동맹) 제9차 대회 개막을 사흘 앞두고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독려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조선노동당의 영웅청년대군’이라는 제목의 정론에서 “청년동맹 제9차 대회는 조선의 영웅 청년들의 새로운 역사의 출발선”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조선 청년 운동의 최전성기”라고 주장함.
- 김일성 주석 집권기인 1993년 2월 이후 23년여 만에 열리는 이번 청년동맹 행사는 오는 8월 26일 평양에서 개막함.

2016. 8. 24.

■ 北, 인민군 각 군단 산하에 ‘핵 배낭’ 부대 신설(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인민군 각 군단 산하에 유사시 방사성 물질 살포를 전문으로 하는 ‘핵 배낭’ 부대를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보도함.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올해 3월께 인민군 각 군단 산하의 정찰소대와 경비병 여단에서 우수한 인원들을 선발해 대대급으로 ‘핵 배낭’ 부대를 신설했다”고 말함.

- 북한은 2013년 열병식 때도 방사능 표식을 한 배낭을 멘 특수부대가 차량에 탑승한 채로 나온 바 있음.

■ **북한, 내부 군열 속 중점경 곳곳서 토목사업·체제 견재 과시(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주영대사관 태영호 공사 등 엘리트층의 이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대적인 토목사업에 나서 중국 접경 곳곳에 대형 건물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음.
- 북한이 최근 드러난 군열 조짐과 관련해 대외적으로 체제 견재를 과시하고 내부적으로는 결속을 다지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보’에 발 벗고 나섰다는 관측이 나옴.
- 북중접경의 한 관측통은 “북한이 엘리트의 잇단 망명 등 내부위기를 극복하고 대외적으로 체제의 견재를 과시하는 방안으로 잇단 토목사업을 일으켰다”며 “평양 려명거리 건설 등 ‘200일 전투’의 영향도 있다”고 말함.

2016. 8. 25.

■ **北 노동신문, SLBM 시험발사 사진 24장 공개(연합뉴스)**

-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현지 지도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사진을 공개하며 미사일 개발 수준을 과시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김정은 동지께서 어둠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풍랑 사나운 날바다를 헤치시며 발사현장에 또다시 나오시어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 발사를 지도하셨다”며 1~2면에 관련 사진 24장을 게재함.
- 또 함께 지리한 다른 간부들이 울먹이는 모습도 사진에 담겼으며, 김정은이 관계자들과 잠수함 앞에서 촬영한 기념사진도 신문에 게재됨.

■ **北 TV, SLBM 발사 영상 공개(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TV는 25일 낮 12시30분(평양시간 12시) 전날 실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장면을 방송함.
- 중앙TV는 이날 공개한 1분47초짜리 영상을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된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함.
- 전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감행한 북한은 이날 노동신문 등 매체를 동원해 시험발사가 ‘대성공’을 거뒀다며 대대적인 선전을 펼치고 있음.

2016. 8. 26.

■ **北, 올해 UFG 연습 대응수준 높아..‘특별경계 1호’ 발령(연합뉴스)**

- 북한군이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대응해 ‘특별경계근무 1호’를 발령한 것으로 알려짐.
- 이는 지난해 UFG 연습 때 발령된 특별경계근무 2호보다 한 단계 더 격상된 것으로, 북한군이 이번 UFG 연습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줌.
- 앞서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UFG 연습 첫날인 22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지금 이 시각부터 조선인민군 1차타격연합부대들이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에 투입된 모든 적 공격 집단들에 선제적인 보복타격을 가할 수 있게 항시적 결전 태세를 견지하고 있다”고 위협한 바 있음.

■ **北, 평양시 강동군 군사훈련장 확장중..탱크훈련장(연합뉴스)**

- 북한이 차량과 탱크훈련 등을 위한 평양시 강동군 군사훈련장에 대한 확장 공사를 벌이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 보도함.
-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SAIS) 한미연구소의 커티스 멜빈 연구원은 RFA에 출연, 미국 상업위성에 지난 6월 4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힘.
- 멜빈 연구원은 또 “평양 인근의 마장리에도 사격장과 차량 훈련, 장애물 훈련 등을 위한 대규모 군사훈련 시설이 새로 조성됐다”며 “김정은 시대의 뚜렷한 특징 중 하나는 핵과 미사일뿐 아니라 재래식 군사력의 증강에도 주력하는 모습”이라고 강조함.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2016. 8. 22.

■ **北, 선군절 앞두고 “군사력 담보돼야 경제강국 건설” 주장(연합뉴스)**

- 북한은 선군절(8월25일)을 앞두고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서는 군사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우리 사상과 제도를 허물고 정권과 삶의 모든 영역을 찬탈하기 위한 적대 세력들의 악랄한 정치군사도발 책동은 오늘도 지속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 땅에서는 선군의 위력으로 온갖 역풍을 순풍으로 돌려세우는 기적이 창조되고 있다”고 주장함.
- 북한은 김정일이 1960년 8월 25일 과거 한국전쟁 당시 서울에 처음 진입한 ‘류경수 제105탱크사단’을 방문한 것을 선군혁명 영도의 출발점이라고 선전하며 기념하고 있음.

2016. 8. 24.

■ **北, 선군절 보고대회서 “공격명령만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 북한이 선군절을 하루 앞두고 24일 개최된 중앙보고대회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강력히 비난하며 “공격명령만 기다리고 있다”고 위협함.
-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는 이날 “김정일 동지께서 선군혁명영도의 첫 자옥(자국)을 새기신 56돌 경축 중앙보고대회가 24일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진행됐다”며 “평양시 안의 당 중앙지도기관 성원들, 무력, 성(부처), 중앙기관 일꾼들, 조선인민군, 조선 인민내무군, 장병들, 평양 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 일꾼들, 노력혁신자들이 대회에 참가했다”고 보도함.
- 조선중앙TV에 나온 대회 주석단의 앞줄에는 로두철, 김영철, 오수용, 김평해, 양형섭, 최태복, 김기남, 박봉주, 김영남, 황병서, 최룡해, 리명수, 박영식, 리만건, 곽범기, 김원홍, 최부일 등 당·군·정 수뇌부가 일제히 참석함. 또 뒷줄에는 리용호, 조연준, 김수길을 비롯해 김명식과 최영호의 모습도 보였음.

2016. 8. 25.

■ **北, 선군절 맞아 김정일 띄우기·국보 중의 국보(연합뉴스)**

- 북한 관영매체가 25일 선군절을 맞아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면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독려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선군혁명역사와 업적은 영원 불멸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선군혁명역사는 무한대한 견인력과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는 국보 중의 국보”라고 치켜세움.
- 북한의 선군절은 6·25전쟁 당시 서울에 처음 진입한 ‘류경수 제105 탱크사단’을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방문한 1960년 8월 25일을 기념하기 위해 2013년 국가 명절로 지정됨.

2.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다. 경제 상황

2016. 8. 23.

■ 北 국경경비대 식량 부족·최소 권장량의 30~40% 섭취(연합뉴스)

- 북한 국경경비대 병사들이 당국의 식량 공급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일본 매체 ‘아시아프레스’를 인용해 23일 보도함.
- ‘아시아프레스’는 RFA에 “최근 국경경비대 병사들이 하루에 200~250g의 식량을 섭취하고 있다”면서 “그마저도 껍질을 벗기지 않은 말린 옥수수를 사용해 지은 ‘묵지 밥’을 먹고 있다”고 전함.
- 그러면서 “이렇다 보니 국경경비대 주둔 지역에서 병사들의 범죄도 잇따르고 있다”며 “국경경비대가 강냉이를 도둑질하거나 단속하는 경비원을 폭행하는 일이 있었고 이들이 관여한 밀수나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도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라. 대외 경제 관계

2016. 8. 23.

■ 北, 평양국제상품전람회 다음달 5~8일 개최(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가 갈수록 강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다음 달 국제상품전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북한의 인터넷 선전 매체 메아리는 23일 “제12차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가 9월 5일부터 8일까지 3대혁명전시관 새기술혁신관과 중공업관에서 진행되게 된다”면서 “이번 전람회에는 금속, 전력, 석탄, 철도, 기계, 경공업, 농업, 화학, 전자, 식료, 일용, 보건 부문 등의 제품들을 전시하게 된다”고 밝힘.
- 북한은 외자 유치와 상품 수출을 목적으로 매년 봄과 가을 2차례 평양국제상품전람회를 개최하고 있음.

2016. 8. 24.

■ 북한 무역 ‘흔들’…중국, 대북 철광석 수입 급감(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의 교역 중심지인 중국 지린(吉林)성의 대북 수입액이 올해 들어 급감해 북한 경제에 치명타를 주는 것으로 확인됨.

- 특히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철광석의 중국 유입이 크게 줄면서 북한의 대중 교역 부진이 가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북 소식통은 “북한의 경우 지린성을 통한 광물 수출에 대외 교역의 대부분을 의지하고 있는데 지린성 교역액이 줄었다는 것은 북한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함.

■ 北, 스위스시계 확보 어려워져·석 달째 수입 전무(연합뉴스)

- 지난 5월 스위스 정부가 대북 독자 제재를 단행한 이후 석 달째 스위스 시계의 대북 수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보도함.
- 스위스시계산업협회(FHS)는 지난 5~6월에 이어 7월에도 스위스 시계의 대북 수출이 전혀 없었다고 밝힘.
- VOA는 “해당 기간 미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간 물품은 실험실 연구장비와 상업용 인쇄물이 전부”라며 “이들 품목은 인도적 지원용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함.

■ 中, 북중접경서 무관세 ‘호시무역’ 확대 추진·제재 이완 조짐(연합뉴스)

-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와중에 북중 접경지역에서 북한을 상대로 민간 차원의 무관세 교역인 호시무역(互市貿易)을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24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단둥시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신개발지 귀면(國門)항 1곳에서 운영하는 호시무역구를 3~4곳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접경지역의 한 관측통은 “중양 정부가 낙후된 동북3성의 전면 진흥을 지방 정부에 주문하면서 대외개방 확대의 일환으로 전통적 우방인 북한과의 경협에 나서는 모습”이라고 말함.

■ 中 7월 대북 수출 올해 최대폭 ‘뚝’…전년比 27.6%↓(연합뉴스)

- 중국의 7월 대북 수출이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 지난 4월 이후 본격화한 중국의 대북제재가 효력을 발휘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외환 사정마저 갈수록 악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 24일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가 공개한 중국 해관총서의 북·중 7월 교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7월 대북 수출은 1억9천300만 달러(약 2천166억원)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6% 감소함.
- 실제로 중국의 7월 대북 항공유 수출액은 130만 달러로 6월 474만 달러보다 크게 감소함.

3.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2016. 8. 23.

■ 北, 노트텔 몰수 조치·김정은 등장 퇴폐영상 유포 때문(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등장하는 퇴폐 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우려해 소형 영상물 시청장비인 ‘노트텔’을 몰수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보도함.
- 함경남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증양에서 학생들이 교육용으로 구입한 노트텔마저 몰수하고 있다”며 “사법기관에서 흘러나온 자료에 의하면 주민들 속에 ‘왕재산경음악단 무용 CD’가 돌고 있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라고 말함.
- 소식통은 “‘왕재산경음악단 무용 CD’에는 반라 상태의 여성들이 나와 김정은이 보는 앞에서 춤을 추는 퇴폐적인 영상이 담겨있다”면서 “이 같은 은밀한 영상물이 주민들 속에 급속히 퍼지면서 갑자기 노트텔에 대한 전면단속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함.

■ 북한 주민의 주변국 호감도, 中·韓·러·日·美 순(연합뉴스)

- 북한 주민의 주변국에 대한 호감도가 중국, 한국, 러시아, 일본, 미국 순인 것으로 조사됨. 최규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4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리는 학술회의에서 ‘북한주민의 통일과 주변국 인식’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임.
- 연구원은 이번 학술회의를 위해 지난 6월부터 2달간에 걸쳐 작년과 올해 탈북한 138명에 대해 대면 설문조사를 벌였으며, 이번 조사결과를 앞선 2011~2015년 조사결과와 대조했음.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원장 정근식)의 이날 학술회의는 ‘김정은 정권 5년, 북한사회 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열림.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2016. 8. 21.

■ 대북제재 6개월...北외관 변화없어 보이니 주민은 노동 총동원(연합뉴스)

- “유엔의 대북 제재 이후에도 북한 평양은 외관상 변화는 없어 보이지만 국민은 노동에 총동원되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를 채택한 지 6개월을 맞은 최근 평양 현지의 분위기를 이같이 전함.
- 21일 교도통신의 ‘유엔 제재 하의 북한 평양’ 제하 현지 르포 기사에 따르면 평양 거리 곳곳에는 ‘200일 전투’, ‘만리마 속도 창조’라는 내용의 표어가 곳곳에 걸려 있음.
- 통신은 북한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의 김철(43) 소장이 “북은 자립적 경제건설 노선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유엔 등의) 제재가 주는 영향은 매우 적다”며 “제재를 하든 말든 우리 힘과 기술로 자립성 강한 경제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는 인터뷰도 소개함. 그는 “전력도 수요를 충분히 충당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첨가제를 새로 개발·도입해 전력생산을 늘렸고 수력발전소도 많이 건설됐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함.

2016. 8. 23.

■ 北주민 휴대폰·PC 이용 감소...사상통제 강화 여파(연합뉴스)

- 최근 1~2년간 북한 주민들의 휴대폰 이용 비율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주민 통제가 강화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옴. 정은미 서울대 박사는 23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주최 ‘김정은 정권 5년, 북한사회 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 학술회의에서 공개할 발표문에서 “올해 탈북자 설문조사 결과 집전화와 손전화(휴대전화), 컴퓨터 보유·이용률이 전년 조사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 정 박사는 “남한의 대북방송 재개에 대응해 사상통제를 강화하면서 외부 정보 유입에 대한 통제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남한 사회에 대한 인지 수준 및 남한 매체 의존도도 전년 대비 낮아졌다”고 분석함.
- 같은 맥락에서 주민의 이동이나 ‘한류’ 접촉 비율 등에 대한 지표도 전반적으로 하락함. 동일 탈북자 집단을 상대로 설문한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의 발표문에 따르면 주민의 지리적 이동 경험은 지난해 75.3%에서 올해 68.1%로 감소했고, 한류 접촉 경험도 ‘자주 접촉’의 경우 57.5%에서 52.2%로 줄었음.

2016. 8. 24.

■ **김정은 핵·경제 병진노선, 주민 지지도 못받아 탈북민 조사(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핵·경제 병진노선이 북한 주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사결과가 나옴.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24일 공개한 탈북자 대상 올해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북한에 있었을 때 핵무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묻는 말에 핵 보유에 반대했다는 답변이 31.1%(다소 반대 9.4%, 매우 반대 21.7%)에 달함.
- 조사결과 발표를 겸한 학술회의는 24일 오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목련홀에서 열림.

2016. 8. 25.

■ **북간부, '백두혈통의 대는 이미 끊겼다'(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간부들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통치명분으로 삼고 있는 '백두혈통'이 이미 끊긴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보도함.
- 북한의 한 관계자는 RFA에 "김일성이 아끼던 사위, 그리고 김정일도 '하나밖에 없는 매부'라고 치켜세웠던 장성택을(김정은이) 처형하고, 김경희 고모까지 내쳤으니, 이미 백두혈통의 대가 끊긴 것 아니냐"고 말함.
- 이와 관련해 노동당 간부 출신의 탈북자는 "만일 김정은의 생모인 고용희가 '재일동포'라는 사실을 일반 주민들이 아는 날에는 김정은은 백두혈통 명분을 잃게 된다"면서 "그때는 김정은이 가짜 백두혈통으로 비난받을 것"이라고 전함.

2016. 8. 26.

■ **북병사들, 북중접경 단둥 침입해 당나귀고기 훔치다 총격받아(연합뉴스)**

- 북중 접경지인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에서 북한 병사들이 식량을 탈취하다가 중국 측 국경경비대에 적발돼 총격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아시히신문이 국경경비대 소식통을 인용해 26일 보도함.
- 신문은 평양으로 식량이 공출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식량 사정이 악화돼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함. 신문에 따르면 사건은 이달 초순 어느 날 밤 단둥의 후산장청(虎山長城) 부근에서 발생함.
- 한 북중 소식통은 북한에서 지난 6월부터 '200일 전투'라는 증산운동이 시작된 이후 지방에서 고기와 계란 등 식료품이 평양으로 공출되면서 일시적으로 식량사정이 악화된 지역도 있다고

지적함. 이 소식통은 아시히신문에 “(이 사건은) 우선적으로 식량이 공급돼야 할 병사에게도 식량이 충분히 건네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말함.

4.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6. 8. 20.

■ 美CSIS “北김정은, 한미훈련 비난해 체제결속 수단으로 활용”(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한국과 미국이 일 년에 두 차례 펼치는 합동군사훈련을 체제결속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분석이 나옴.
- 18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을 정권 충성도를 높이고 한반도에서 미국을 몰아내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설명함.
- 한편, 한국과 미국은 이달 22일부터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UFG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함.

■ 北, 美 ‘핵 선제 불사용’ 정책에 “음흉한 술책” 비난(연합뉴스)

- 북한이 20일 오바마 행정부의 핵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정책에 대해 “세계를 기만하기 위한 음흉한 술책”이라고 비난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인류를 또다시 우롱하려는 핵 범인의 술책’이라는 제목의 개인 논평을 통해 “집권 초기에 ‘핵무기 없는 세계’ 구상을 내놓고 그 타령을 줄곧 늘어놓은 오바마(대통령)가 집권 말기에 이른 오늘에 와서 또다시 요술을 피우며 세상 사람들을 업어 넘기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힘.
- 칼럼니스트 조시 로건은 지난달 10일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말에 핵 정책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고, 여기에는 ‘핵 선제 불사용’도 포함됐다고 주장한 바 있음.

■ 美, 성김 후임 대북정책 특별대표에 조셉 윤 말레이대사 검토(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필리핀 주재 대사로 내정된 성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후임으로 한국계 미국인인 조셉 윤(61) 말레이시아 대사를 기용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NHK가 20일 전함.
- NHK에 따르면 윤 대사는 지난 1985년 외교관 생활을 시작해 한국과 태국, 프랑스, 인도네시아, 홍콩 등에서 근무한 ‘아시아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음.

- 이에 따라 윤 대사는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취임하면 한국, 일본 등 관계국과 협의에 속도를 내는 등 연대를 강화해가면서 대북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NHK는 덧붙임.

2016. 8. 22.

■ **美전문가, 외교관 탈북으로 北재정위기 가속화 가능성(연합뉴스)**

-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스테판 해거드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UCSD) 석좌교수는 22일 외화 유출을 가져올 수 있는 외교관 등의 탈북이 북한 내에서 “재정위기 시나리오를 가속할 수 있다”고 진단함.
- 해거드 교수는 이날 서울 종로구 동아시아재단(EAF)에서 대북제재를 주제로 강연한 자리에서 “북한에 재정위기가 닥칠 수 있는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함.
- 그러면서 “사드 문제는 북한의 핵능력 진전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중국에) 강조해야 한다”며 “북한 미사일 문제에서 진척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는 중국에 대한 메시지가기도 하다”고 지적함.

2016. 8. 23.

■ **美CSIS “남북 비정규전 전력, 한반도 불안정 야기 우려”(연합뉴스)**

-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이 높아지면서 남북한의 비(非) 정규전 전력이 한반도의 불안정을 고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옴.
- 비 정규전 전력은 고전적 의미의 전쟁으로 분류되지 않는 심리전, 첩보전, 해킹 등과 같은 활동을 담당하는 전력을 뜻함.
- 보고서는 또 한국의 특수부대에 대해서는 공개된 통계가 거의 없으면서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보고서를 인용해 1개 사령부에 7개 여단이 있다고 밝힘.

2016. 8. 24.

■ **美정부, 을지연습은 연례 방어훈련..北 긴장완화 조치 취해야(연합뉴스)**

- 미국 국방부는 22일(현지시간)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대한 북한의 고강도 반발과 관련, 연례 방어훈련이라고 일축하면서 북한에 도발적 언행 대신 긴장완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
- 피터 쿡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선 어떤 것도 경시하지 않고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힘.
- 한편, 쿡 대변인은 북한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시설 가동 정황에 대해 “북한의 핵무기

확보 노력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하고 있다.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할 기회를 갖고 있는데 아직 그런 시도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음.

■ **美 국무부, 북한 여행경보 3개월마다 갱신키로(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가 자국민에 대한 북한 여행경보를 기존의 6개월이 아닌 3개월마다 갱신키로 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24일 보도함.
-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의 한 관리는 VOA에 “북한 여행경보가 국무부의 외교업무 매뉴얼을 더는 따르지 않고 지난 2월 발효된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의 관할 아래 놓이게 됐다”고 밝힘.
- VOA는 “지난 2013년 11월 19일 5번째로 발표한 경보에서 북한 여행 참가 대상을 ‘모든 미국인’으로 규정한 이래 이번에 갱신 주기마저 줄인 배경에는 북한을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압박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이 깔렸다”고 분석함.

■ **美 국무부, 北 판문점 지뢰매설에 “역내 긴장만 고조” 비판(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23일(현지시간) 북한군이 판문점 인근에 군인들의 탈북을 막기 위한 대인지뢰를 매설한 것과 관련, “역내 긴장만 고조시킬 뿐”이라고 비판함.
- 마크 토너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인지뢰는 안전상의 위협을 초래한다”면서 이같이 밝힘.
- 정부의 한 소식통은 앞서 “북한군이 지난주 판문점의 ‘돌아오지 않는 다리’의 북측지역에 여러 발의 지뢰를 매설한 것이 목격됐다”면서 “전방지역 부대에 근무하는 군인들의 탈북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밝힘.

2016. 8. 25.

■ **美 백악관, 北 미사일발사에 “추가제재 가능성 배제안해”(연합뉴스)**

- 미국 백악관은 24일(현지시간)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에 대한 추가제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힘.
- 조시 에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정권의 도발적이고 불안한 조성하는 행동들에 대해 계속해서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함.
-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5시 30분께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SLBM 1발을 동해 상으로 시험 발사했으며, 이 미사일은 약 500km를 날아간 뒤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 안에 떨어짐.

■ **주일 美해병대사령관 연평도 시찰·北 도발하면 함께 싸울 것(연합뉴스)**

- 유사시 한반도에 파견되는 미군 증원전력인 주일 미 해병대 사령관이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나흘째인 25일 서해 최전방 연평도를 방문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의지를 과시함.
- 해병대사령부는 “이상훈 해병대사령관(중장)과 로런스 니콜슨 미 3해병기동군 사령관(중장)이 오늘 연평도를 찾아 한미 연합작전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힘.
- 니콜슨 사령관은 서북도서가 한반도 안보의 전략적 요충지라는 점에 공감하며 현장을 시찰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우리측이 이를 받아들여 이번 방문이 성사됐다고 해병대는 설명함.

2016. 8. 26.

■ **美, 北SLBM 규탄 언론성명 초안 안보리 이사국에 회람(연합뉴스)**

- 북한의 지난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규탄하는 성명 초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에 회람 중인 것으로 전해짐.
- 26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의 SLBM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언론성명 초안을 현지시간으로 25일 이사국들에 돌림.
- 이에 따라 안보리는 성명 초안에 대해 이른바 ‘침묵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임. 침묵 절차는 채택에 앞서 일정 시한까지 반대가 없으면 이사국들이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를 말함.
-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안보리 논의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지 우리 정부로서는 현시점에서 예단하지 않고자 한다”면서 “다만 우리 정부로서는 우방국들과 긴밀한 협력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함.

나. 북·중 관계

2016. 8. 22.

■ **중국, 北 재처리 주장에 “한반도 비핵화” 강조(연합뉴스)**

-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지 않겠다면서 무기급 플루토늄과 농축 우라늄을 생산했거나 생산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강조하고 나섬. 또한, 당사국들이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힘.
- 중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지난 21일 북한 영변 핵시설의 핵연료 재처리 주장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우리는 이와 관련된 보도를 알고 있다”면서 “중국 측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호하는데

일관된 입장으로 힘쓰고 있다”고 밝힘. 이어 대변인실은 “우리는 관련 당사자들이 한반도 긴장 국면을 조성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함.

-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이 비핵화 원칙을 다시 강조했다다는 것은 북한의 핵 개발에 중국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다만 현재 한국, 미국과 사드 문제로 대립 국면이라 북한의 핵 재처리와 관련한 유엔 제재에 동참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함.

■ 압록강철교 재보수공사 연기…北이 연기요청한 듯(연합뉴스)

- 지난 20일 시작될 예정이었던 조중우의교(압록강철교) 재(再)보수공사가 북한 당국의 요청으로 3일째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북한 전문매체인 ‘데일리NK’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22일 보도함.
- 평안북도 소식통은 이날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압록강철교 재보수공사가 갑자기 연기됐다”며 “공사에 따른 세관 근무 중지 조치까지 내려왔던 것이 연기됐다”고 말함.
- 북한과 중국은 양국 간 무역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압록강철교에 대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일까지 보수공사를 했지만, 일부 도로 구간의 파손이 심각해 재보수공사 논란이 일고 있음.

2016. 8. 24.

■ 中 왕이 외교부장, 北 SLBM 발사 바람직하지 않다(연합뉴스)

-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24일 북한이 동해상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한데 대해 한반도 등을 둘러싼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힘.
-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그는 이날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문에 “사태를 더욱 긴장시키고 복잡하게 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함.
- 왕이 외교부장은 이날 윤병세 외교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 등과 개별 또는 3차회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북한의 이날 SLBM 발사 문제에 대한 어떤 식으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됨.

2016. 8. 25.

■ 中언론, 한중일 회의서 ‘중국, 北핵개발 반대 1면 톱 보도(연합뉴스)

- 중국 관영 언론이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반대했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함.

- 중국은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자제해왔지만 북한이 지난 24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하는 등 실질적인 위협으로 등장하자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으로 보임.
-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25일 1면 톱기사로 '평양의 핵 계획을 반대했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북한이 SLBM을 시험 발사한 후 중국이 지난 24일 도쿄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함.

다. 북·일 관계

2016. 8. 23.

■ 아베, 北 SLBM 日방공식별구역 낙하는 처음·용서 어려운 폭거(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4일 북한이 동해상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데 대해 “안전보장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현저히 손상하는 용서하기 어려운 폭거”라고 비판함.
- 교도통신에 따르면 그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잠수함에서 발사된 북한 미사일이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에 떨어진 것은 처음”이라며 이같이 규탄함.
- 아베 총리는 “이는 명백한 유엔 결의 위반으로, 북한에 대해 단호하게 항의했다”며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대해 가면서 의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함.

2016. 8. 24.

■ 北 “미사일 발사는 자위적 조치, 日 경계망동 말라”(연합뉴스)

- 북한은 동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한 24일 그동안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 ‘자위적 조치’라면서 일본을 향해 군사 대국화 등 경계망동하지 말라고 주장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일본은 함부로 경계망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일본 반동들이 우리의 로켓 발사를 턱대고 그 무슨 ‘미사일위협’설을 내돌리면서 ‘사드’ (일본) 배치에 발악적으로 매여달리고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또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고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해 해외침략 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려고 책동하고 있다. 일본 반동들의 군국주의 부활 책동이 도를 넘고 있다”며 “경고하건대 재침은 곧 망국과 파멸의 길”이라고 비난함.

■ **日 “北 SLBM 발사 안보리 결의 위반”…아베 ‘만전 대비’ 지시(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4일 북한이 동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한 것과 관련해 방위성 등 관계 성청(부처)에 정보 수집 및 분석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함.
-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또 일본의 항공기 및 선박 등의 안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사태에 대비해 만전의 태세를 갖출 것을 요청함.
- 이날 교도통신과 NHK 등은 연합뉴스를 인용해 북한의 SLBM 발사 및 일본 방공식별구역 낙하 소식을 속보로 전함.

라. 북·러 관계

2016. 8. 22.

■ **북한, 내달 러 극동 ‘동방경제포럼’에 대표단 보낼까(연합뉴스)**

- 북한이 다음 달 초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릴 '제2차 동방경제포럼'에 대표단을 파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올해 초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로 외교적 고립에 처한 북한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자국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러시아를 찾아 협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과 함께 대북 강경 정책을 호소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참석하는 포럼에 대표단을 보내기가 부담스러울 것이란 분석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음.
- 러시아는 포럼 참석 인사 가운데 최고위급인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를 이번 포럼의 주빈으로 예우하고 있음.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6. 8. 21.

■ **北, 중앙아 공관 폐쇄·서방거점 英과 마찰…전방위 고립양상(연합뉴스)**

- 북한이 중앙아시아의 주요 국가의 공관을 폐쇄하거나 공관 재개설 시도가 무산되는 등 외교적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음.
- 서방 국가들과 아프리카·아시아 비동맹 진영의 전통 우호국,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구소련권 국가들까지 등을 돌리면서 북한의 전방위적 외교 고립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임.

- 북한은 대(對)서방 외교 핵심 거점인 영국과도 태영호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의 귀순을 계기로 마찰을 빚고 있음.

2016. 8. 23.

■ 서방 나선특구 취재단 방북 취소·북한이 꺼려(자유아시아방송)

- 8월 말로 예정됐던 서방 취재단의 나선경제특구 취재를 위한 방북이 북한당국의 부정적인 태도로 취소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보도함.
- 네덜란드 대북 투자 자문회사인 'GPI 컨설턴스'의 폴 치아 대표는 RFA에 “이달 말 서방 취재단의 방북이 계획됐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취소됐다”며 “북한 당국이 예년에 비해 이번에 유독 취재단을 꺼렸다. 입국 승인 받기가 어려웠다”고 말함.
- 치아 대표는 “이런 국면일수록 북한과 외부 세계와의 교류가 더 필요하다”며 “오는 9월 9일 네덜란드에서 ‘북한을 향한 새로운 정책-포용을 위한 제안들’을 주제로 학술 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힘.

■ 주한 우크라이나대사 “핵포기한 우크라이나, 북에 사례될 것”(연합뉴스)

- 바실 마르마조프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한 우크라이나가 “북한에 대해 (뒤따를 만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함.
- 마르마조프 대사는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8월24일)을 맞아 연합뉴스와 가진 대면 및 서면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를 지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힘.
- 그는 “우크라이나는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핵무기포기를 자발적으로 영토밖으로 반출했다”며 “북한에 사례가 되는 만큼 국제사회는 우리의 이런 행동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함.

2016. 8. 24.

■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서 북미사일 대응 지역협력 방안 거론(연합뉴스)

- 일본에서 24일 열린 제8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에서 한국과 일본 외교수장은 이날 북한이 동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한 것과 관련해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고 중국 측은 경제 등 분야에서 지역협력 방안을 거론함.
- 기사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이날 도쿄 이이쿠라(飯倉) 공관에서 열린 3국 외교장관회의의 모두 발언에서 “오늘 아침 북한이 SLBM을 발사한 것은 결단코 용인할 수 없으며 일본은 이에 즉시 항의했다”며 “3국으로 국제사회 대응을 주도하고자 긴밀하게 공조해 나갔으

면 한다”고 말함.

-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발사 시도에서 보듯이 이 지역에선 북의 핵 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3국의 단합된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중국이 주최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3국의 협력은 중요하고 이러한 협력체제는 공동의 도전이라는 점에서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진다”고 말함.

■ 독일, 타우러스 한국 판매는 합법·北 주장 반박(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한국에 대한 독일의 장거리 공대지유도미사일 ‘타우러스’ 판매를 불법이라며 비난하자 독일이 반박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24일 보도함.
-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BMWi) 공보실 안드레아스 아우드레치 박사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독일 정부는 관련 수출통제법에 근거해 전쟁무기 수출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힘.
- 타우러스는 생산국인 독일에서 2~3개월 안으로 한국에 도착해 실전 배치될 예정임.

■ 비동맹 형제국은 옛말·北과 거리두는 동남아 우방들(연합뉴스)

-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이후에도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거듭하면서 동남아시아의 전통적 우방들 사이에서 북한과 거리를 두는 기류가 뚜렷해지고 있음.
- 24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내부 사정에 밝은 북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주재 안광일 북한 대사는 지난달 26일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직전 레 르엉 밍 아세안 사무총장을 면담함.
- 이 자리에서 안 대사는 밍 총장의 출신국인 베트남과 북한의 전통적 우호 관계를 강조하며 협력을 촉구했으나, 밍 총장은 “나는 베트남이 아니라 아세안을 대표한다.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로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짐.

■ EU “북한, 미사일발사 중단하고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해야”(연합뉴스)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4일 북한이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모든 미사일 발사행위를 중단하고 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촉구함.
- EU 집행위는 이날 대외관계청(EEAS)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여러 차례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규정한 북한의 국제적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또 하나의 사례”라고 지적함.
- 앞서 EU는 지난 6월 23일, 7월 19일, 8월 3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성명을 내고 북한의 행동을 비판하며 미사일 발사 중지 및 유엔 결의 준수를 촉구한 바 있음. 또 지난

5월 27일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광범위한 대북 제재를 단행하기도 함.

2016. 8. 25.

■ **안보리, 北 SLBM발사에 긴급회의…반기문, 깊은 우려(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4일(현지시간) 오후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따른 대책을 논의함.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해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촉구를 무시한 것”이라며 “깊이 우려된다”고 규탄함.
- 유엔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보리의 이날 긴급회의는 미국과 일본의 요청에 따라 소집됐으며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비공개로 진행됨.

2016. 8. 26.

■ **독일, 北 SLBM 시험발사 강력 비판·국제고립 가져올 뿐(연합뉴스)**

- 마르틴 셰퍼 독일 외교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와 관련해 “만약 평양이 다시 한 번 의도적으로 주변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경우, 우리는 이를 묵묵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셰퍼 대변인은 이날 연방정부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국제법 위반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같이 말함.
- 아울러 독일은 북한에 대해 이후 추가 도발과 거리를 둘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를 북한 측 채널에 거듭 직접, 그리고 매우 분명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한중일 외교장관의 (대북) 성명서에 명확하게 동의한다고 덧붙임.

바. 군사 및 핵·미사일

2016. 8. 21.

■ **IAEA, 북한 영변 재처리시설 재가동 흔적 여러개 확인(연합뉴스)**

- 북한이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생산했다고 밝힌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비슷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짐.
- 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IAEA는 북한이 올해 1분기부터 영변의 재처리시설을 재가동했음을 시사하는 복수의 흔적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19일(현지시간) 공표함.

- 북한 원자력연구원은 “흑연감속로에서 꺼낸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했다”고 이날 17일 교도통신과의 서면인터뷰에 밝힌 바 있음.

2016. 8. 23.

■ 美SIS “北, 올해 핵무기 2~4개분량 플루토늄 재처리”(연합뉴스)

- 북한이 올해 영변 원자로의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핵무기 2~4개 분량의 플루토늄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정책연구기관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21일(이하 현지시간) 밝혔.
- ISIS는 북한에서 재처리를 통해 추출한 플루토늄의 양을 5.5~8kg으로 추정한 뒤 핵무기 1개당 2~4kg의 플루토늄이 쓰이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산출했다고 설명함.
- 북한이 영변 원자로에서 사용후 핵연료를 빼내 재처리했을 가능성은 올해 초부터 계속 제기돼 왔음.

2016. 8. 24.

■ 北, 새벽 SLBM 1발 발사·합참, 500km비행·日방공식별구역 낙하(연합뉴스)

- 북한이 24일 동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함. 이 SLBM은 현재까지 북한이 진행한 시험발사 중에서 가장 먼 500km를 비행, 북한이 수중사출 기술에 이어 비행기술까지 상당 수준 확보한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음.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오늘 오전 5시 30분께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SLBM 1발을 동해상으로 시험발사했다”면서 “SLBM은 500km를 비행해 지난 수 차례 시험발사에 비해 진전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 한미가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
- 합참은 “오늘 북한의 SLBM 시험발사는 한반도 안보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

■ 외신, 北 SLBM 발사 긴급보도·기술진전 주목 핵위협 새 국면(연합뉴스)

- 외신들은 24일 동해 상에서 북한이 감행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시험발사 소식을 긴급하게 전하며 늘어난 비행거리와 기술 진전에 주목함.
- AFP통신은 이날 오전 북한이 동해 상에서 발사한 SLBM이 과거 시험발사 때와 비교해

진전된 거리인 500km(310마일)를 날아갔다는 한국 합동참모본부의 말을 인용해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함.

- AFP는 “한국 국방부는 그동안 북한의 SLBM 실전 배치까지 3~4년이 걸릴 것으로 말했다”며 “입증된 SLBM 기술로 북한의 핵 타격 위협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고 설명함.

■ 북한 SLBM 고각으로 발사·정상각도면 사거리 1천km이상(연합뉴스)

- 북한이 24일 동해상에서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정상보다 높은 각도로 발사된 것으로 전해짐.
- 이날 발사된 SLBM은 500km를 비행했는데, 정상 각도로 발사됐다면 사거리가 1천km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군 당국은 판단하고 있음.
- 사드가 40~150km의 고도에서 최대 마하 14의 속도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드의 요격범위 내에 있다는 것이 군 당국의 판단임.

2016. 8. 25.

■ 美전문가 “北, 신포급보다 더 큰 미사일 탑재 잠수함 개발중”(연합뉴스)

- 북한이 탄도미사일 탑재용으로 개발 중인 ‘신포급’ 또는 ‘고래급’ 잠수함보다 더 큰 잠수함을 현재 개발 중이라는 미국 전문가의 의견이 제기됨.
- 정보분석업체 올로스 애널리시스의 북한 군사문제 전문가 조지프 버뮤데스 연구원은 24일(이하 현지시간) 북한 전문매체 ‘38노스’ 주최 전화 간담회에서 “기존 잠수함보다 더 큰 새 잠수함을 만들고 있으며, (북한에서는) 몇 년 전부터 그런 잠수함을 설계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38노스는 또 신포항 인근 육태동에 조성 중인 새로운 잠수함 기지로 추정되는 시설의 위성사진도 공개함.

■ 北 언급한 ‘전략잠수함’은···SLBM 3발이상 장착 3천급 유력(연합뉴스)

-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각별한 관심 속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여러 발 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을 건조 중인 것으로 보임.
- 이르면 올해 안에 SLBM을 실전배치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이 신형 잠수함까지 전력화할 경우 북한의 SLBM은 한미 양국을 겨냥한 실질적인 위협으로 떠오를 수 있음.
-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을 실시간 추적하려면 사실상 무한정 잠항 능력을 갖춘 핵추진 잠수함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핵추진 잠수함이

있으면 북한 잠수함을 계속 추적하다가 SLBM 발사 조짐만 보여도 해저에서 격침할 수 있다”고 강조함.

2016. 8. 26.

■ 38노스 “北, 동창리 로켓발사장 경비 강화”(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2년여 동안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서해 로켓발사장 주변에 대한 경비를 강화했다고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25일(현지시간) 밝힘.
- 정보분석업체 올스스 애널리시스의 조지프 버뮤데스 연구원은 이 매체 기고문을 통해 발사장 주변에 27km 길이의 외부 경계선과 19km 길이의 내부 경계선이 조성됐고 경계선을 따라 담을 설치하는 등의 활동이 이뤄졌다고 설명함.
- 동창리 로켓발사장은 북한이 지난 2월 장거리로켓을 발사했던 곳임.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정치	8.20	영국 北대사관, 주차 과태료 3억원 미납...중고품 되팔기도(연합뉴스) 北리수용, 앙골라 집권당 대회 축하연설...친선관계 확대(연합뉴스) 北 대외경제상에 김영재 전 주러시아 대사 임명(연합뉴스)	
	8.22	北 TV, '김일성 빨치산 동료' 오백룡 소개편집물 재방(연합뉴스) 자유북한방송 "北대남 해외공작기구, 당 소속으로 환원"(연합뉴스) 北, 선군절 앞두고 "군사력 담보돼야 경제강국 건설" 주장(연합뉴스)	
	8.23	[단독] 김정은, 장성택 흔적지우기 집착...트라우마에 시달려(연합뉴스) 北 25세이상 외교관 자녀 소환령...태영호에 아들만 둘(연합뉴스) 北, 청년동맹 대회 앞두고 김정은 향한 충성 독려(연합뉴스)	
	8.24	北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 나미비아 도착(연합뉴스) 北, 인민군 각 군단 산하에 '핵 배낭' 부대 신설(자유아시아방송) 북한, 내부 균열 속 중점경 곳곳서 토목사업...체제 견제 과시(연합뉴스) 北, 선군절 보고대회서 "공격명령만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8.25	北 김정은 "SLBM 시험발사, 성공 중의 성공" 선언(연합뉴스) 北 노동신문, SLBM 시험발사 사진 24장 공개(연합뉴스) 北 TV, SLBM 발사 영상 공개(연합뉴스) 北, 선군절 맞아 김정일 띄우기...국보 중의 국보(연합뉴스)	
	8.26	김정은 'SLBM 2~3발 쏠 잠수함 2018년까지 만들라' 지시(연합뉴스) 北, 23년 만에 청년동맹 대회 개막...수령옹위 투사로 키워야(연합뉴스) 北, 올해 UFG 연습 대응수준 높여...'특별경계 1호' 발령(연합뉴스) 北, 평양시 강동군 군사훈련장 확장중...탱크훈련장(연합뉴스)	
	경제	8.23	北국경경비대 식량 부족...최소 권장량의 30~40% 섭취(연합뉴스) 北, 평양국제상품전람회 다음달 5~8일 개최(연합뉴스)
		8.24	북한 무역 '흔들'...중국, 대북 철광석 수입 급감(연합뉴스) 北, 스위스시계 확보 어려워져...석 달째 수입 전무(연합뉴스) 中, 북중접경서 무관세 '호시무역' 확대 추진...제재 이완 조짐(연합뉴스) 中 7월 대북 수출 올해 최대폭 '뚝'...전년比 27.6%↓(연합뉴스)

사회 문화	8.21	대북제재 6개월...北외관 변화없어 보이니 주민은 노동 총동원(연합뉴스)
	8.23	北, 노트텔 몰수 조치...김정은 등장 퇴폐영상 유포 때문(연합뉴스)
		북한 주민의 주변국 호감도, 中·韓·러·日·美 순(연합뉴스) 北주민 휴대폰·PC 이용 감소...사상통제 강화 여파(연합뉴스)
	8.24	김정은 핵·경제 병진노선, 주민 지지도 못받아<탈북민 조사>(연합뉴스)
	8.25	北간부, '백두혈통의 대는 이미 끊겼다'(자유아시아방송)
	8.26	北병사들, 북중접경 단둥 침입해 당나귀고기 훔치다 총격받아(연합뉴스)
외교 국방	8.20	美CSIS "北김정은, 한미훈련 비난해 체제결속 수단으로 활용"(연합뉴스)
		北, 美 '핵 선제 불사용' 정책에 "음흉한 술책" 비난(연합뉴스) 美, 성김 후임 대북정책 특별대표에 조셉 윤 말레이대사 검토(연합뉴스)
	8.21	北, 중앙아 공관 폐쇄·서방거점 英과 마찰...전방위 고립양상(연합뉴스)
		IAEA, 북한 영변 재처리시설 재가동 흔적 여러개 확인(연합뉴스)
	8.22	美전문가, 외교관 탈북으로 北재정위기 가속화 가능성(연합뉴스)
		중국, 北 재처리 주장에 "한반도 비핵화" 강조(연합뉴스)
		압록강철교 재보수공사 연기...北이 연기요청한 듯(연합뉴스) 북한, 내달 러 극동 '동방경제포럼'에 대표단 보낼까(연합뉴스)
	8.23	美CSIS "남북 비정규전 전력, 한반도 불안정 야기 우려"(연합뉴스)
		아베, 北 SLBM 日방공식별구역 낙하는 처음...용서 어려운 폭거(연합뉴스)
		서방 나선특구 취재단 방북 취소...북한이 꺼려(자유아시아방송)
		주한 우크라이나대사 "핵포기한 우크라이나, 北에 사례될 것"(연합뉴스) 美SIS "北, 올해 핵무기 2~4개분량 플루토늄 재처리"(연합뉴스)
	8.24	美정부, 을지연습은 연례 방어훈련...北 긴장완화 조치 취해야(연합뉴스)
		美 국무부, 북한 여행경보 3개월마다 갱신키로(연합뉴스)
		美국무부, 北 판문점 지뢰매설에 "역내 긴장만 고조" 비판(연합뉴스)
		中 왕이 외교부장, 北 SLBM 발사 바람직하지 않다(연합뉴스)
		北 "미사일 발사는 자위적 조치, 日 경거망동 말라"(연합뉴스)
日 "北SLBM 발사 안보리 결의 위반"...아베 '만전 대비' 지시(연합뉴스)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서 北미사일 대응·지역협력 방안 거론(연합뉴스)		
독일, 타우러스 한국 판매는 합법...北 주장 반박(연합뉴스)		
비동맹 형제국은 옛말...北과 거리두는 동남아 우방들(연합뉴스)		
EU "북한, 미사일발사 중단하고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해야"(연합뉴스)		
北새벽 SLBM 1발 발사...합참, 500km비행·日방공식별구역 낙하(연합뉴스)		
위신, 北 SLBM 발사 긴급보도...기술진전 주목 핵위협 새 국면(연합뉴스)		
북한 SLBM 고각으로 발사...정상각도면 사거리 1천km이상(연합뉴스)		

8.25	美 백악관, 北 미사일발사에 “추가제재 가능성 배제안해”(연합뉴스)
	주일 美해병대사령관 연평도 시찰…北 도발하면 함께 싸울 것(연합뉴스)
	中언론, 한중일 회의서 ‘중국, 北핵개발 반대’ 1면 톱 보도(연합뉴스)
	안보리, 北 SLBM발사에 긴급회의…반기문, 깊은 우려(연합뉴스)
	美전문가 “北, 신포급보다 더 큰 미사일탑재 잠수함 개발중”(연합뉴스)
8.26	北 언급한 ‘전략잠수함’은…SLBM 3발이상 장착3천급 유력(연합뉴스)
	美, 北SLBM 규탄 언론성명 초안 안보리 이사국에 회람(연합뉴스)
	독일, 北 SLBM 시험발사 강력 비판…국제고립 가져올 뿐(연합뉴스)
	38노스 “北, 동창리 로켓발사장 경비 강화”(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6. 8. 23.

■ [단독] 김정은, 장성택 흔적지우기 집착…트라우마에 시달려(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2013년 12월 반당·반혁명 종파행위 및 국가전복음모 죄로 처형된 고모부 장성택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23일 알려짐.
- 북한 사정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김정은은 장성택이 관여한 시설의 명칭으로 많이 사용되는 ‘대동강’, ‘해당화’가 들어간 시설에 과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지난 6월에는 평양 용성구역에 있는 ‘해당화김치공장’을 시찰하던 중 돌연 불쾌해 하며 해당화가 들어간 시설은 이름을 모두 ‘류경’으로 바꾸라고 지시했다”고 밝힘.
- 대북 소식통은 “이처럼 김정은의 장성택에 대한 트라우마는 도를 넘고 있는데 이제는 장성택과 전혀 관계없는 곳을 시찰하다가도 수행 간부들에게 갑자기 ‘장성택 놈이 음흉한 방법으로 장군님(김정일) 지시를 관철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격분하는가 하면 ‘어디에 가보아도 장성택과 당 행정부 것들이 뺄치지 않은 곳이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다”고 덧붙임.

2016. 8. 25.

■ 北 김정은 “SLBM 시험발사, 성공 중의 성공” 선언(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24일 실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북한명 북극성 시험발사에 대해 “이번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 발사는 성공 중의 성공, 승리중의 승리”라고 말함.
- 김정은은 SLBM 발사를 현지지도한 자리에서 “오늘 발사한 탄도탄의 시험 결과를 통하여 우리가 핵공격 능력을 완벽하게 보유한 군사대국의 전열에 당당히 들어섰다는 것이 현실로 증명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함.
- 김정은은 현재 진행중인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엄중 경고하면서 “이제는 미국의 핵패권에 맞설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을 다 갖춘 조건에서 일단 기회만 조성되면 우리 인민은 정의의 핵마치(망치)로 폭제의 핵을 무자비하게 내려쳐 부정의의 못이 다시는 솟아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함.
- 이번 시험발사에는 리병철, 김정식, 정승일 등 당 중앙위 책임일꾼들과 국방과학연구부문

일꾼들이 현장을 방문한 김정은을 맞았다. 김정은은 발사가 끝나고 참여한 해군장병들과 기념사진도 찍음.

2016. 8. 26.

■ **김정은 ‘SLBM 2~3발 쏘 잠수함 2018년까지 만들라 지시(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인 2018년 9월 9일까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관을 2~3개 갖춘 신형 잠수함을 만들라는 지시를 했다고 도쿄신문이 26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노동당 군수공업담당 간부에게 이런 지시를 했다는 이야기를 북한 국방부문 관계자에게서 들었다고 북한 소식통이 밝힘.
- 이 신문은 SLBM을 발사하려면 육상발사, 수중 발사, 탄두 비행 기술, 탄두를 노린 대로 쏘는 유도기술의 4단계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번 시험으로 북한이 3단계에 해당하는 탄도 비행기술을 확보한 것은 확인됐으나 마지막 단계인 유도기술에 달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임.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6. 8. 22.

■ **北리수용, 앙골라 집권당 대회 축하연설...친선관계 확대(연합뉴스)**

-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앙골라의 집권 여당인 앙골라인민해방운동(MPLA) 7차 대회에서 축하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앙골라인민해방운동 제7차 대회가 17일부터 20일까지 수도 루안다에서 진행되었다”며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 노동당대표단이 앙골라인민해방운동 제7차대회에 참가하였다”고 전함.
-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리 부위원장은 첫 방문지인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방문을 마치고 지난 16일 앙골라 수도 루안다에 도착함.

■ **北 대외경제상에 김영재 전 주러시아 대사 임명(연합뉴스)**

- 북한의 외자유치와 대외경제협력을 총괄하는 대외경제성의 수장인 대외경제상에 김영재(64) 전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가 임명됐다고 러시아 관영 매체 스푸트니크가 22일 보도함.
- 스푸트니크는 “(관련 소식은)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에 게시됐다”며 “알렉산드르 미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김영재 전 대사의 임명을 축하했다”고 전함.
- 한편,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대외경제상을 맡았던 리룡남은 지난 6월 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내각부총리에 오름.

2016. 8. 23.

■ **北 25세이상 외교관 자녀 소환령…태영호에 아들만 들(연합뉴스)**

-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최근 해외 주재 외교관의 자녀 가운데 25세 이상인 경우 본국 송환령을 내렸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23일 전해짐.
- 국회 정보위원회의 복수 소식통은 “국정원으로부터 그 같은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망명한 것이 그 이유 때문인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함.
- 이 관계자는 “그런 소환령이 있었다고 해도 태영호 영국 공사의 망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지는 못했을 것”이라면서 “그 정도의 고위직이 자녀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힘. 이 관계자는 이어 “태 공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결심을 하고 시기만 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함.
- 한편, 국정원은 유럽에서 북한 노동당 자금을 관리하던 주재원이 수천억 원을 들고 잠적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부인했다고 정보위 관계자들이 전함.

2016. 8. 24.

■ **北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 나미비아 도착(연합뉴스)**

-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리수용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앙골라에 이어 세 번째 방문지인 나미비아에 도착했다고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24일 보도함.
- 방송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노동당 대표단이 나미비아 공화국을 방문하기 위해서 수도 빈트후크에 도착했다”고 전함.
- 앙골라 인민해방운동 대외관계부상과 앙골라 주재 북한 대사가 비행장에서 대표단을 전송함.

다. 공식행사

2016. 8. 26.

■ **北, 23년 만에 청년동맹 대회 개막…수령옹위 투사로 키워야(연합뉴스)**

- 북한은 23년 만에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하 청년동맹) 제9차 대회가 열리는 26일 청년 세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들을 ‘수령 결사옹위의 투사’로 키워내야 한다고 독려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은 오늘의 시대정신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모든 청년들을 백두산영웅 청년돌격대원들과 같은 훌륭한 청년들로 키우는 것은 당과 수령의 청년중시 사상과 영도 업적을 끝없이 빛내며 혁명을 보위하고 전진시키는 중대한 사업”이라고 밝힘.
- 청년동맹은 만 14세부터 30세까지의 청년 학생층이 의무 가입하는 북한 최대의 청년 근로단체이자 사회단체로 약 500만 명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짐.

라. 주요 기관 행위

2016. 8. 20.

■ 영국 北대사관, 주차 과태료 3억원 미납…중고품 되팔기도(연합뉴스)

- 한국으로 귀순한 태영호 공사가 있던 영국 런던 주재 북한대사관이 영국 정부에 3억원에 이르는 불법 주차 과태료를 미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20일(현지시간) 보도함.
- 이곳의 한 북한 외교관은 중고 인형을 사 세탁한 뒤 되파는 '부업'을 했다는 증언도 나오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외화벌이 압박을 받는 북한 외교관들의 생활고 실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
- 텔레그래프는 이날 2015년 영국 외무부 자료를 인용해 북한 대사관이 20만 파운드(약 2억9천만원)가 넘는 불법 주차 과태료를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함.

2016. 8. 22.

■ 北 TV, ‘김일성 빨치산 동료’ 오백룡 소개편집물 재방(연합뉴스)

-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빨치산 동료인 오백룡 전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사부장에 대한 소개편집물을 4개월 만에 재방송함.
-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귀순한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의 부인인 오혜선이 오백룡 일가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이번 방영 배경에 관심이 쏠림.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22일 “적어도 오혜선이 오백룡과 가까운 촌수의 친인척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약, 가까운 촌수의 친인척 관계라면 북한이 내부 결속에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역으로 과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함.

■ 자유북한방송 “北대남 해외공작기구, 당 소속으로 환원”(연합뉴스)

- 북한이 2009년 인민군 정찰총국으로 통합시켰던 ‘35호실’ 등 노동당 대남 해외 공작기구

- 들을 당 소속으로 환원시킨 것으로 전해졌다고 대북매체인 자유북한방송이 22일 보도함.
- 북한 내 소식통은 이 매체에 “과거 인민군 정찰총국으로 통합시켰던 노동당 대남·해외 공작기구들이 원상 복구했다”고 말함.
- 앞서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후계자로 내정된 직후인 2009년 2월, 기존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국과 노동당 산하 작전부, 해외공작기관인 35호실 등 기관을 ‘정찰총국’으로 개편함.

2016. 8. 23.

■ 北, 청년동맹 대회 앞두고 김정은 향한 충성 독려(연합뉴스)

- 북한은 23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하 청년동맹) 제9차 대회 개막을 사흘 앞두고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독려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조선노동당의 영웅청년대군’이라는 제목의 정론에서 “청년동맹 제9차 대회는 조선의 영웅 청년들의 새로운 역사의 출발선”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조선 청년 운동의 최전성기”라고 주장함.
- 김일성 주석 집권기인 1993년 2월 이후 23년여 만에 열리는 이번 청년동맹 행사는 오는 8월 26일 평양에서 개막함.

2016. 8. 24.

■ 北, 인민군 각 군단 산하에 ‘핵 배낭’ 부대 신설(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인민군 각 군단 산하에 유사시 방사성 물질 살포를 전문으로 하는 ‘핵 배낭부대’를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보도함.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올해 3월께 인민군 각 군단 산하의 정찰소대와 경보병 여단에서 우수한 인원들을 선발해 대대급으로 ‘핵 배낭’ 부대를 신설했다”고 말함.
- 북한은 2013년 열병식 때도 방사능 표식을 한 배낭을 멘 특수부대가 차량에 탑승한 채로 나온 바 있음.

■ 북한, 내부 군열 속 中접경 곳곳서 토목사업·체제 견제 과시(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주영대사관 태영호 공사 등 엘리트층의 이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대적인 토목사업에 나서 중국 접경 곳곳에 대형 건물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음.
- 북한이 최근 드러난 군열 조짐과 관련해 대외적으로 체제 견제를 과시하고 내부적으로는 결속을 다지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보’에 발 벗고 나섰다는 관측이 나옴.
- 북중접경의 한 관측통은 “북한이 엘리트의 잇단 망명 등 내부위기를 극복하고 대외적으

로 체제의 존재를 과시하는 방안으로 잇단 토목사업을 일으켰다”며 “평양 려명거리 건설 등 ‘200일 전투’의 영향도 있다”고 말함.

2016. 8. 25.

■ **北 노동신문, SLBM 시험발사 사진 24장 공개(연합뉴스)**

-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현지 지도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사진을 공개하며 미사일 개발 수준을 과시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김정은 동지께서 어둠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풍랑 사나운 날바다를 헤치시며 발사현장에 또다시 나오시어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 발사를 지도하셨다”며 1~2면에 관련 사진 24장을 게재함.
- 또 함께 자리한 다른 간부들이 울먹이는 모습도 사진에 담겼으며, 김정은이 관계자들과 잠수함 앞에서 촬영한 기념사진도 신문에 게재됨.

■ **北 TV, SLBM 발사 영상 공개(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TV는 25일 낮 12시30분(평양시간 12시) 전날 실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장면을 방송함.
- 중앙TV는 이날 공개한 1분47초짜리 영상을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된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함.
- 전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감행한 북한은 이날 노동신문 등 매체를 동원해 시험발사가 ‘대성공’을 거뒀다며 대대적인 선전을 펼치고 있음.

2016. 8. 26.

■ **北, 올해 UFG 연습 대응수준 높아…‘특별경계 1호’ 발령(연합뉴스)**

- 북한군이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트덤가디언(UFG) 연습에 대응해 ‘특별경계근무 1호’를 발령한 것으로 알려짐.
- 이는 지난해 UFG 연습 때 발령된 특별경계근무 2호보다 한 단계 더 격상된 것으로, 북한군이 이번 UFG 연습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줌.
- 앞서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UFG 연습 첫날인 22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지금 이 시각부터 조선인민군 1차타격연합부대들이 ‘을지프리트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에 투입된 모든 적 공격 집단들에 선제적인 보복타격을 가할 수 있게 항시적 결전 태세를 견지하고 있다”고 위협한 바 있음.

■ **北, 평양시 강동군 군사훈련장 확장중·탱크훈련장(연합뉴스)**

- 북한이 차량과 탱크훈련 등을 위한 평양시 강동군 군사훈련장에 대한 확장 공사를 벌이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 보도함.
-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SAIS) 한미연구소의 커티스 멜빈 연구원은 RFA에 출연, 미국 상업위성에 지난 6월 4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힘.
- 멜빈 연구원은 또 “평양 인근의 마장리에도 사격장과 차량 훈련, 장애물 훈련 등을 위한 대규모 군사훈련 시설이 새로 조성됐다”며 “김정은 시대의 뚜렷한 특징 중 하나는 핵과 미사일뿐 아니라 재래식 군사력의 증강에도 주력하는 모습”이라고 강조함.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2016. 8. 22.

■ **北, 선군절 앞두고 “군사력 담보돼야 경제강국 건설” 주장(연합뉴스)**

- 북한은 선군절(8월25일)을 앞두고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서는 군사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우리 사상과 제도를 허물고 정권과 삶의 모든 영역을 찬탈하기 위한 적대 세력들의 악랄한 정치군사도발 책동은 오늘도 지속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 땅에서는 선군의 위력으로 온갖 역풍을 순풍으로 돌려세우는 기적이 창조되고 있다”고 주장함.
- 북한은 김정일이 1960년 8월 25일 과거 한국전쟁 당시 서울에 처음 진입한 ‘류경수 제105탱크사단’을 방문한 것을 선군혁명 영도의 출발점이라고 선전하며 기념하고 있음.

2016. 8. 24.

■ **北, 선군절 보고대회서 “공격명령만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 북한이 선군절을 하루 앞두고 24일 개최된 중앙보고대회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강력히 비난하며 “공격명령만 기다리고 있다”고 위협함.
-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는 이날 “김정일 동지께서 선군혁명영도의 첫 자욱(자국)을 새기신 56돌 경축 중앙보고대회가 24일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진행됐다”며 “평양시 안의 당 중앙지도기관 성원들, 무력, 성(부처), 중앙기관 일꾼들, 조선인민군, 조선 인민내무군, 장병들, 평양 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 일꾼들, 노력혁신자들이 대회에 참가했다”고 보도함.
- 조선중앙TV에 나온 대회 주석단의 앞줄에는 로두철, 김영철, 오수용, 김평해, 양형섭, 최태복,

김기남, 박봉주, 김영남, 황병서, 최룡해, 리명수, 박영식, 리만건, 곽범기, 김원홍, 최부일 등 당·군정 수뇌부가 일제히 참석함. 또 뒷줄에는 리용호, 조연준, 김수길을 비롯해 김명식과 최영호의 모습도 보였음.

2016. 8. 25.

■ **北, 선군절 맞아 김정일 띄우기·국보 중의 국보(연합뉴스)**

- 북한 관영매체가 25일 선군절을 맞아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면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독려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선군혁명역사와 업적은 영원불멸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선군혁명역사는 무한대한 견인력과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는 국보 중의 국보”라고 치켜세움.
- 북한의 선군절은 6·25전쟁 당시 서울에 처음 진입한 ‘류경수 제105 탱크사단’을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방문한 1960년 8월 25일을 기념하기 위해 2013년 국가 명절로 지정됨.

2.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다. 경제 상황

2016. 8. 23.

■ **北국경경비대 식량 부족·최소 권장량의 30~40% 섭취(연합뉴스)**

- 북한 국경경비대 병사들이 당국의 식량 공급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일본 매체 ‘아시아프레스’를 인용해 23일 보도함.
- ‘아시아프레스’는 RFA에 “최근 국경경비대 병사들이 하루에 200~250g의 식량을 섭취하고 있다”면서 “그마저도 껍질을 벗기지 않은 말린 옥수수를 사용해 지은 ‘묵지밥’을 먹고 있다”고 전함.

- 그러면서 “이렇다 보니 국경경비대 주둔 지역에서 병사들의 범죄도 잇따르고 있다”며 “국경경비대가 강냉이를 도둑질하거나 단속하는 경비원을 폭행하는 일이 있었고 이들이 관여한 밀수나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도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라. 대외 경제 관계

2016. 8. 23.

■ 北, 평양국제상품전람회 다음달 5~8일 개최(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가 갈수록 강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다음 달 국제상품전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북한의 인터넷 선전 매체 메아리는 23일 “제12차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가 9월 5일부터 8일까지 3대혁명전시관 새기술혁신관과 중공업관에서 진행되게 된다”면서 “이번 전람회에는 금속, 전력, 석탄, 철도, 기계, 경공업, 농업, 화학, 전자, 식료, 일용, 보건 부문 등의 제품들을 전시하게 된다”고 밝힘.
- 북한은 외자 유치와 상품 수출을 목적으로 매년 봄과 가을 2차례 평양국제상품전람회를 개최하고 있음.

2016. 8. 24.

■ 북한 무역 ‘흔들’…중국, 대북 철광석 수입 급감(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의 교역 중심지인 중국 지린(吉林)성의 대북 수입액이 올해 들어 급감해 북한 경제에 치명타를 주는 것으로 확인됨.
- 특히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철광석의 중국 유입이 크게 줄면서 북한의 대중 교역 부진이 가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북 소식통은 “북한의 경우 지린성을 통한 광물 수출에 대외 교역의 대부분을 의지하고 있는데 지린성 교역액이 줄었다는 것은 북한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함.

■ 北, 스위스시계 확보 어려워져…석 달째 수입 전무(연합뉴스)

- 지난 5월 스위스 정부가 대북 독자 제재를 단행한 이후 석 달째 스위스 시계의 대북 수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보도함.
- 스위스시계산업협회(FHS)는 지난 5~6월에 이어 7월에도 스위스 시계의 대북 수출이 전혀 없었다고 밝힘.

- VOA는 “해당 기간 미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간 물품은 실험실 연구장비와 상업용 인쇄물이 전부”라며 “이들 품목은 인도적 지원용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함.

■ **中, 북중접경서 무관세 ‘호시무역’ 확대 추진·제재 이완 조짐(연합뉴스)**

-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와중에 북중 접경지역에서 북한을 상대로 민간 차원의 무관세 교역인 호시무역(互市貿易)을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24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단둥시는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신개발지 귀먼(國門)항 1곳에서 운영하는 호시무역구를 3~4 곳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접경지역의 한 관측통은 “중양 정부가 낙후된 동북3성의 전면 진흥을 지방 정부에 주문하면서 대외개방 확대의 일환으로 전통적 우방인 북한과의 경험에 나서는 모습”이라고 말함.

■ **中 7월 대북 수출 올해 최대폭 ‘뚝’…전년비 27.6%↓(연합뉴스)**

- 중국의 7월 대북 수출이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 지난 4월 이후 본격화한 중국의 대북제재가 효력을 발휘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외환 사정마저 갈수록 악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 24일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가 공개한 중국 해관총서의 북·중 7월 교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7월 대북 수출은 1억9천300만 달러(약 2천166억원)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6% 감소함.
- 실제로 중국의 7월 대북 항공유 수출액은 130만 달러로 6월 474만 달러보다 크게 감소함.

3.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2016. 8. 23.

■ **北, 노트텔 몰수 조치·김정은 등장 퇴폐영상 유포 때문(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등장하는 퇴폐 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우려해 소형 영상물 시청장비인 ‘노트텔’을 몰수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보도함.
- 함경남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중양에서 학생들이 교육용으로 구입한 노트텔마저 몰수하고 있다”며 “사법기관에서 흘러나온 자료에 의하면 주민들 속에 ‘왕재산경음

악단 무용 CD'가 돌고 있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라고 말함.

- 소식통은 ““왕재산경음악단 무용 CD'에는 반라 상태의 여성들이 나와 김정은이 보는 앞에서 춤을 추는 퇴폐적인 영상이 담겨있다”면서 “이 같은 은밀한 영상물이 주민들 속에 급속히 퍼지면서 갑자기 노트텔에 대한 전면단속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함.

■ 북한 주민의 주변국 호감도 中·韓·러·日·美 순(연합뉴스)

- 북한 주민의 주변국에 대한 호감도가 중국, 한국, 러시아, 일본, 미국 순인 것으로 조사됨. 최규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4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리는 학술회의에서 ‘북한주민의 통일과 주변국 인식’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임.
- 연구원은 이번 학술회의를 위해 지난 6월부터 2달간에 걸쳐 작년과 올해 탈북한 138명에 대해 대면 설문조사를 벌였으며, 이번 조사결과를 앞선 2011~2015년 조사결과와 대조했음.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원장 정근식)의 이날 학술회의는 ‘김정은 정권 5년, 북한사회 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열림.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2016. 8. 21.

■ 대북제재 6개월…北외관 변화없어 보이나 주민은 노동 총동원(연합뉴스)

- “유엔의 대북 제재 이후에도 북한 평양은 외관상 변화는 없어 보이지만 국민은 노동에 총동원되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를 채택한 지 6개월을 맞은 최근 평양 현지의 분위기를 이같이 전함.
- 21일 교도통신의 ‘유엔 제재 하의 북한 평양’ 제하 현지 르포 기사에 따르면 평양 거리 곳곳에는 ‘200일 전투’, ‘만리마 속도 창조’라는 내용의 표어가 곳곳에 걸려 있음.

- 통신은 북한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의 김철(43) 소장이 “북은 자립적 경제건설 노선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유엔 등의) 제재가 주는 영향은 매우 적다”며 “제재를 하든 말든 우리 힘과 기술로 자립성 강한 경제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는 인터뷰도 소개함. 그는 “전력도 수요를 충분히 충족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첨가제를 새로 개발·도입해 전력생산을 늘렸고 수력발전소도 많이 건설됐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함.

2016. 8. 23.

■ 북주민 휴대폰·PC 이용 감소·사상통제 강화 여파(연합뉴스)

- 최근 1~2년간 북한 주민들의 휴대폰 이용 비율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주민 통제가 강화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옴. 정은미 서울대 박사는 23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주최 ‘김정은 정권 5년, 북한사회 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 학술회의에서 공개할 발표문에서 “올해 탈북자 설문조사 결과 집전화와 손전화(휴대전화), 컴퓨터 보유·이용률이 전년 조사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 정 박사는 “남한의 대북방송 재개에 대응해 사상통제를 강화하면서 외부 정보 유입에 대한 통제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남한 사회에 대한 인지 수준 및 남한 매체 의존도도 전년 대비 낮아졌다”고 분석함.
- 같은 맥락에서 주민의 이동이나 ‘한류’ 접촉 비율 등에 대한 지표도 전반적으로 하락함. 동일 탈북자 집단을 상대로 설문한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의 발표문에 따르면 주민의 지리적 이동 경험은 지난해 75.3%에서 올해 68.1%로 감소했고, 한류 접촉 경험도 ‘자주 접촉’의 경우 57.5%에서 52.2%로 줄었음.

2016. 8. 24.

■ 김정은 핵경제 병진노선, 주민 지지도 못받아 탈북민 조사(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핵경제 병진노선이 북한 주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사결과가 나옴.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24일 공개한 탈북자 대상 올해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북한에 있었을 때 핵무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묻는 말에 핵 보유에 반대했다는 답변이 31.1%(다소 반대 9.4%, 매우 반대 21.7%)에 달함.
- 조사결과 발표를 겸한 학술회의는 24일 오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목련홀에서 열림.

2016. 8. 25.

■ **北간부, ‘백두혈통의 대는 이미 끊겼다’(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간부들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통치명분으로 삼고 있는 ‘백두혈통’이 이미 끊긴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보도함.
- 북한의 한 관계자는 RFA에 “김일성이 아끼던 사위, 그리고 김정일도 ‘하나밖에 없는 매부’라고 치켜세웠던 장성택을 (김정은이) 처형하고, 김경희 고모까지 내쳤으니, 이미 백두혈통의 대가 끊긴 것 아니냐”고 말함.
- 이와 관련해 노동당 간부 출신의 탈북자는 “만일 김정은의 생모인 고용희가 ‘재일동포’라는 사실을 일반 주민들이 아는 날에는 김정은은 백두혈통 명분을 잃게 된다”면서 “그때는 김정은이 가짜 백두혈통으로 비난받을 것”이라고 전함.

2016. 8. 26.

■ **北병사들, 북중접경 단둥 침입해 당나귀고기 훔치다 총격받아(연합뉴스)**

- 북중 접경지인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에서 북한 병사들이 식량을 탈취하다가 중국측 국경경비대에 적발돼 총격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아사히신문이 국경경비대 소식통을 인용해 26일 보도함.
- 신문은 평양으로 식량이 공출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식량사정이 악화돼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함. 신문에 따르면 사건은 이달 초순 어느 날 밤 단둥의 후산장청(虎山長城) 부근에서 발생함.
- 한 북중 소식통은 북한에서 지난 6월부터 ‘200일 전투’라는 증산운동이 시작된 이후 지방에서 고기와 계란 등 식료품이 평양으로 공출되면서 일시적으로 식량사정이 악화된 지역도 있다고 지적함. 이 소식통은 아사히신문에 “(이 사건은) 우선적으로 식량이 공급돼야 할 병사에게도 식량이 충분히 건네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말함.

4.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6. 8. 20.

■ **美CSIS “北김정은, 한미훈련 비난해 체제결속 수단으로 활용”(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한국과 미국이 일 년에 두 차례 펼치는 합동군사훈련을 체제결속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분석이 나옴.

- 18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을 정권 충성도를 높이고 한반도에서 미국을 몰아내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설명함.
- 한편, 한국과 미국은 이달 22일부터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UFG·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함.

■ 北, 美 ‘핵 선제 불사용’ 정책에 “음흉한 술책” 비난(연합뉴스)

- 북한이 20일 오바마 행정부의 핵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정책에 대해 “세계를 기만하기 위한 음흉한 술책”이라고 비난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인류를 또다시 우롱하려는 핵 범인의 술책’이라는 제목의 개인 논평을 통해 “집권 초기에 ‘핵무기 없는 세계’ 구상을 내놓고 그 타령을 줄곧 늘어놓은 오바마(대통령)가 집권 말기에 이른 오늘에 와서 또다시 요술을 피우며 세상 사람들을 업어 넘기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힘.
- 칼럼니스트 조시 로진은 지난달 10일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말에 핵 정책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고, 여기에는 ‘핵 선제 불사용’도 포함됐다고 주장한 바 있음.

■ 美, 성김 후임 대북정책 특별대표에 조셉 윤 말레이시아 대사 검토(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필리핀 주재 대사로 내정된 성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후임으로 한국계 미국인인 조셉 윤(61) 말레이시아 대사를 기용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NHK가 20일 전함.
- NHK에 따르면 윤 대사는 지난 1985년 외교관 생활을 시작해 한국과 태국, 프랑스, 인도네시아, 홍콩 등에서 근무한 ‘아시아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음.
- 이에 따라 윤 대사는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취임하면 한국, 일본 등 관계국과 협의에 속도를 내는 등 연대를 강화해가면서 대북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NHK는 덧붙임.

2016. 8. 22.

■ 美전문가, 외교관 탈북으로 北재정위기 가속화 가능성(연합뉴스)

-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스테판 해거드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UCSD) 석좌교수는 22일 외화 유출을 가져올 수 있는 외교관 등의 탈북이 북한 내에서 “재정위기 시나리오를 가속할 수 있다”고 진단함.

- 해거드 교수는 이날 서울 종로구 동아시아재단(EAF)에서 대북제재를 주제로 강연한 자리에서 “북한에 재정위기가 닥칠 수 있는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함.
- 그러면서 “사드 문제는 북한의 핵능력 진전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중국에) 강조해야 한다”며 “북한 미사일 문제에서 진척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는 중국에 대한 메시지가기도 하다”고 지적함.

2016. 8. 23.

■ **美CSIS “남북 비정규전 전력, 한반도 불안정 야기 우려”(연합뉴스)**

-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이 높아지면서 남북한의 비(非) 정규전 전력이 한반도의 불안정을 고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옴.
- 비 정규전 전력은 고전적 의미의 전쟁으로 분류되지 않는 심리전, 첩보전, 해킹 등과 같은 활동을 담당하는 전력을 뜻함.
- 보고서는 또 한국의 특수부대에 대해서는 공개된 통계가 거의 없으면서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보고서를 인용해 1개 사령부에 7개 여단이 있다고 밝힘.

2016. 8. 24.

■ **美정부, 을지연습은 연례 방어훈련..北 긴장완화 조치 취해야(연합뉴스)**

- 미국 국방부는 22일(현지시간)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대한 북한의 고강도 반발과 관련, 연례 방어훈련이라고 일축하면서 북한에 도발적 언행 대신 긴장완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
- 피터 쿡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선 어떤 것도 경시하지 않고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힘.
- 한편, 쿡 대변인은 북한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시설 가동 정황에 대해 “북한의 핵무기 확보 노력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하고 있다.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할 기회를 갖고 있는데 아직 그런 시도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음.

■ **美 국무부, 북한 여행경보 3개월마다 갱신키로(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가 자국민에 대한 북한 여행경보를 기존의 6개월이 아닌 3개월마다 갱신키로 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24일 보도함.
- 임명을 요구한 국무부의 한 관리는 VOA에 “북한 여행경보가 국무부의 외교업무 매뉴얼

을 더는 따르지 않고 지난 2월 발효된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의 관할 아래 놓이게 됐다”고 밝힘.

- VOA는 “지난 2013년 11월 19일 5번째로 발표한 정보에서 북한 여행 참가 대상을 ‘모든 미국인’으로 규정한 이래 이번에 갱신 주기마저 줄인 배경에는 북한을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압박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이 깔렸다”고 분석함.

■ **미국무부, 北 판문점 지뢰매설에 “역내 긴장만 고조” 비판(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23일(현지시간) 북한군이 판문점 인근에 군인들의 탈북을 막기 위한 대인지뢰를 매설한 것과 관련, “역내 긴장만 고조시킬 뿐”이라고 비판함.
- 마크 토너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인지뢰는 안전상의 위협을 초래한다”면서 이같이 밝힘.
- 정부의 한 소식통은 앞서 “북한군이 지난주 판문점의 ‘돌아오지 않는 다리’의 북측지역에 여러 발의 지뢰를 매설한 것이 목격됐다”면서 “전방지역 부대에 근무하는 군인들의 탈북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밝힘.

2016. 8. 25.

■ **美 백악관, 北 미사일발사에 “추가제재 가능성 배제안해”(연합뉴스)**

- 미국 백악관은 24일(현지시간)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에 대한 추가제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힘.
-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정권의 도발적이고 불안한 조성하는 행동들에 대해 계속해서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함.
-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5시 30분께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SLBM 1발을 동해 상으로 시험 발사했으며, 이 미사일은 약 500km를 날아간 뒤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 안에 떨어짐.

■ **주일 美해병대사령관 연평도 시찰·北 도발하면 함께 싸울 것(연합뉴스)**

- 유사시 한반도에 파견되는 미군 증원전력인 주일 미 해병대사령관이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나흘째인 25일 서해 최전방 연평도를 방문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의지를 과시함.
- 해병대사령부는 “이상훈 해병대사령관(중장)과 로런스 니콜슨 미 3해병기동군사령관(중장)이 오늘 연평도를 찾아 한미 연합작전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힘.
- 니콜슨 사령관은 서북도사가 한반도 안보의 전략적 요충지라는 점에 공감하며 현장을 시찰하고

살다는 뜻을 밝혔고 우리측이 이를 받아들여 이번 방문이 성사됐다고 해병대는 설명함.

2016. 8. 26.

■ **美, 北SLBM 규탄 언론성명 초안 안보리 이사국에 회람(연합뉴스)**

- 북한의 지난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규탄하는 성명 초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에 회람 중인 것으로 전해짐.
- 26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의 SLBM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언론성명 초안을 현지시간으로 25일 이사국들에 돌림.
- 이에 따라 안보리는 성명 초안에 대해 이른바 ‘침묵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임. 침묵 절차는 채택에 앞서 일정 시한까지 반대가 없으면 이사국들이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를 말함.
-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안보리 논의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지 우리 정부로서는 현시점에서 예단하지 않고자 한다”면서 “다만 우리 정부로서는 우방국들과 긴밀한 협력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함.

나. 북·중 관계

2016. 8. 22.

■ **중국, 北 재처리 주장에 “한반도 비핵화” 강조(연합뉴스)**

-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무기급 플루토늄과 농축 우라늄을 생산했거나 생산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강조하고 나섰다. 또한, 당사국들이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힘.
- 중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지난 21일 북한 영변 핵시설의 핵연료 재처리 주장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우리는 이와 관련된 보도를 알고 있다”면서 “중국 측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호하는데 일관된 입장으로 힘쓰고 있다”고 밝힘. 이어 대변인실은 “우리는 관련 당사자들이 한반도 긴장 국면을 조성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함.
-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이 비핵화 원칙을 다시 강조했다다는 것은 북한의 핵 개발에 중국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다만 현재 한국, 미국과 시드 문제로 대립 국면이라 북한의 핵 재처리와 관련한 유엔 제재에 동참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함.

■ **암록강철교 재보수공사 연기…北이 연기요청한 듯(연합뉴스)**

- 지난 20일 시작될 예정이었던 조중우의교(암록강철교) 재(再)보수공사가 북한 당국의

- 요청으로 3일째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북한 전문매체인 ‘데일리NK’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22일 보도함.
- 평안북도 소식통은 이날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압록강철교 재보수공사가 갑자기 연기됐다”며 “공사에 따른 세관 근무 중지 조치까지 내려왔던 것이 연기됐다”고 말함.
 - 북한과 중국은 양국 간 무역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압록강철교에 대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일까지 보수공사를 했지만, 일부 도로 구간의 파손이 심각해 재보수공사 논란이 일고 있음.

2016. 8. 24.

■ 中 왕이 외교부장, 北 SLBM 발사 바람직하지 않다(연합뉴스)

-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24일 북한이 동해상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한데 대해 한반도 등을 둘러싼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힘.
-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그는 이날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문에 “사태를 더욱 긴장시키고 복잡하게 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함.
- 왕이 외교부장은 이날 윤병세 외교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 등과 개별 또는 3차회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북한의 이날 SLBM 발사 문제에 대한 어떤 식으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됨.

2016. 8. 25.

■ 中언론, 한중일 회의서 ‘중국, 北핵개발 반대 1면 톱 보도(연합뉴스)

- 중국 관영 언론이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반대했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함.
- 중국은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자제해왔지만 북한이 지난 24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하는 등 실질적인 위협으로 등장하자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으로 보임.
-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25일 1면 톱기사로 ‘평양의 핵 계획을 반대했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북한이 SLBM을 시험 발사한 후 중국이 지난 24일 도쿄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함.

다. 북·일 관계

2016. 8. 23.

■ 아베, 北 SLBM 日방공식별구역 낙하는 처음·용서 어려운 폭거(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4일 북한이 동해상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데 대해 “안전보장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현저히 손상하는 용서하기 어려운 폭거”라고 비판함.
- 교도통신에 따르면 그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잠수함에서 발사된 북한 미사일이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에 떨어진 것은 처음”이라며 이같이 규탄함.
- 아베 총리는 “이는 명백한 유엔 결의 위반으로, 북한에 대해 단호하게 항의했다”며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대해 가면서 의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함.

2016. 8. 24.

■ 北 “미사일 발사는 자위적 조치, 日 경계망동 말라”(연합뉴스)

- 북한은 동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한 24일 그동안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 ‘자위적 조치’라면서 일본을 향해 군사 대국화 등 경계망동하지 말라고 주장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일본은 함부로 경계망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일본 반동들이 우리의 로켓 발사를 턱대고 그 무슨 ‘미사일위협’설을 내돌리면서 ‘사드’ (일본) 배치에 발악적으로 매여달리고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또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고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해 해외침략 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려고 책동하고 있다. 일본 반동들의 군국주의 부활 책동이 도를 넘고 있다”며 “경고하건대 재침은 곧 망국과 파멸의 길”이라고 비난함.

■ 日 “北SLBM 발사 안보리 결의 위반”...아베 ‘만전 대비’ 지시(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4일 북한이 동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한 것과 관련해 방위성 등 관계 성청(부처)에 정보 수집 및 분석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함.
-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또 일본의 항공기 및 선박 등의 안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사태에 대비해 만전의 태세를 갖출 것을 요청함.

- 이날 교도통신과 NHK 등은 연합뉴스를 인용해 북한의 SLBM 발사 및 일본 방공식별구역 낙하 소식을 속보로 전함.

라. 북·러 관계

2016. 8. 22.

■ 북한, 내달 러 극동 '동방경제포럼'에 대표단 보낼까(연합뉴스)

- 북한이 다음 달 초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릴 '제2차 동방경제포럼'에 대표단을 파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올해 초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로 외교적 고립에 처한 북한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자국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러시아를 찾아 협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과 함께 대북 강경 정책을 호소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참석하는 포럼에 대표단을 보내기가 부담스러울 것이란 분석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음.
- 러시아는 포럼 참석 인사 가운데 최고위급인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를 이번 포럼의 주빈으로 예우하고 있음.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6. 8. 21.

■ 北,중앙아 공관 폐쇄·서방거점 英과 마찰...전방위 고립양상(연합뉴스)

- 북한이 중앙아시아의 주요 국가의 공관을 폐쇄하거나 공관 재개설 시도가 무산되는 등 외교적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음.
- 서방 국가들과 아프리카-아시아 비동맹 진영의 전통 우호국,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구소련권 국가들까지 등을 돌리면서 북한의 전방위적 외교 고립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임.
- 북한은 대(對)서방 외교 핵심 거점인 영국과도 태영호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의 귀순을 계기로 마찰을 빚고 있음.

2016. 8. 23.

■ 서방 나선특구 취재단 방북 취소...북한이 꺼려(자유아시아방송)

- 8월 말로 예정됐던 서방 취재단의 나선경제특구 취재를 위한 방북이 북한당국의 부정적인 태도로 취소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보도함.

- 네덜란드 대북 투자 자문회사인 'GPI 컨설턴스'의 폴 치아 대표는 RFA에 “이달 말 서방 취재단의 방북이 계획됐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취소됐다”며 “북한 당국이 예년에 비해 이번에 유독 취재단을 꺼렸다. 입국 승인 받기가 어려웠다”고 말함.
- 치아 대표는 “이런 국면일수록 북한과 외부 세계와의 교류가 더 필요하다”며 “오는 9월 9일 네덜란드에서 ‘북한을 향한 새로운 정책-포용을 위한 제안들’을 주제로 학술 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힘.

■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핵포기한 우크라이나, 北에 사례될 것”(연합뉴스)

- 바실 마르마조프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한 우크라이나가 “북한에 대해 (뒤따를 만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함.
- 마르마조프 대사는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8월24일)을 맞아 연합뉴스와 가진 대면 및 서면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를 지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힘.
- 그는 “우크라이나는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핵무기고를 자발적으로 영토밖으로 반출했다”며 “북한에 사례가 되는 만큼 국제사회는 우리의 이런 행동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함.

2016. 8. 24.

■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서 北미사일 대응 지역협력 방안 거론(연합뉴스)

- 일본에서 24일 열린 제8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에서 한국과 일본 외교수장은 이날 북한이 동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한 것과 관련해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고 중국 측은 경제 등 분야에서 지역협력 방안을 거론함.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이날 도쿄 이이쿠리(飯倉) 공관에서 열린 3국 외교장관회의의 모두 발언에서 “오늘 아침 북한이 SLBM을 발사한 것은 결단코 용인할 수 없으며 일본은 이에 즉시 항의했다”며 “3국으로 국제사회 대응을 주도하고자 긴밀하게 공조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함.
-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발사 시도에서 보듯이 이 지역에선 북의 핵 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3국의 단합된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중국이 주최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3국의 협력은 중요하고 이러한 협력체제는 공동의 도전이라는 점에서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진다”고 말함.

■ 독일, 타우러스 한국 판매는 합법·北 주장 반박(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한국에 대한 독일의 장거리 공대지유도미사일 ‘타우러스’ 판매를 불법이라며

- 비난하자 독일이 반박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24일 보도함.
-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BMW) 공보실 안드레이스 아우드레치 박사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독일 정부는 관련 수출통제법에 근거해 전쟁무기 수출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힘.
 - 타우러스는 생산국인 독일에서 2~3개월 안으로 한국에 도착해 실전 배치될 예정임.

■ 비동맹 형제국은 옛말·北과 거리두는 동남아 우방들(연합뉴스)

-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이후에도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거듭하면서 동남아시아의 전통적 우방들 사이에서 북한과 거리를 두는 기류가 뚜렷해지고 있음.
- 24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내부 사정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주재 안팎일 북한 대사는 지난달 26일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직전 레 르영 밍 아세안 사무총장을 면담함.
- 이 자리에서 안 대사는 밍 총장의 출신국인 베트남과 북한의 전통적 우호 관계를 강조하며 협력을 촉구했으나, 밍 총장은 “나는 베트남이 아니라 아세안을 대표한다.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로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짐.

■ EU “북한, 미사일발사 중단하고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해야”(연합뉴스)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4일 북한이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모든 미사일 발사행위를 중단하고 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촉구함.
- EU 집행위는 이날 대외관계청(EEAS)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여러 차례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규정한 북한의 국제적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또하나의 사례”라고 지적함.
- 앞서 EU는 지난 6월 23일, 7월 19일, 8월 3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성명을 내고 북한의 행동을 비판하며 미사일 발사 중지 및 유엔 결의 준수를 촉구한 바 있음. 또 지난 5월 27일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광범위한 대북 제재를 단행하기도 함.

2016. 8. 25.

■ 안보리, 北 SLBM발사에 긴급회의·반기문, 깊은 우려(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4일(현지시간) 오후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따른 대책을 논의함.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해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촉구를

무시한 것”이라며 “깊이 우려된다”고 규탄함.

- 유엔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보리의 이날 긴급회의는 미국과 일본의 요청에 따라 소집됐으며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비공개로 진행됨.

2016. 8. 26.

■ **독일, 北 SLBM 시험발사 강력 비판·국제고립 가져올 뿐(연합뉴스)**

- 마르틴 셰퍼 독일 외교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와 관련해 “만약 평양이 다시 한 번 의도적으로 주변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경우, 우리는 이를 묵묵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셰퍼 대변인은 이날 연방정부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국제법 위반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같이 말함.
- 아울러 독일은 북한에 대해 이후 추가 도발과 거리를 둘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를 북한 측 채널에 거듭 직접, 그리고 매우 분명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한중일 외교장관의 (대북) 성명서에 명확하게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바. 군사 및 핵·미사일

2016. 8. 21.

■ **IAEA, 북한 영변 재처리시설 재가동 흔적 여러개 확인(연합뉴스)**

- 북한이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생산했다고 밝힌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비슷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짐.
- 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IAEA는 북한이 올해 1분기부터 영변의 재처리시설을 재가동했음을 시사하는 복수의 흔적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19일(현지시간) 공표함.
- 북한 원자력연구원은 “흑연감속로에서 꺼낸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했다”고 이달 17일 교도통신과의 서면인터뷰에 밝힌 바 있음.

2016. 8. 23.

■ **美SIS “北, 올해 핵무기 2~4개분량 플루토늄 재처리”(연합뉴스)**

- 북한이 올해 영변 원자로의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핵무기 2~4개 분량의 플루토늄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정책연구기관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21일(이

하 현지시간) 밝힘.

- ISIS는 북한에서 재처리를 통해 추출한 플루토늄의 양을 5.5~8kg으로 추정한 뒤 핵무기 1개당 2~4kg의 플루토늄이 쓰이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산출했다고 설명함.
- 북한이 영변 원자로에서 사용후 핵연료를 빼내 재처리했을 가능성은 올해 초부터 계속 제기돼 왔음.

2016. 8. 24.

■ **北, 새벽 SLBM 1발 발사·합참, 500km비행·日방공식별구역 낙하(연합뉴스)**

- 북한이 24일 동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함. 이 SLBM은 현재까지 북한이 진행한 시험발사 중에서 가장 먼 500km를 비행, 북한이 수중사출 기술에 이어 비행기술까지 상당 수준 확보한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음.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오늘 오전 5시 30분께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SLBM 1발을 동해상으로 시험발사했다”면서 “SLBM은 500km를 비행해 지난 수 차례 시험발사에 비해 진전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 한미가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힘.
- 합참은 “오늘 북한의 SLBM 시험발사는 한반도 안보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 **외신, 北 SLBM 발사 긴급보도·기술진전 주목 핵위협 새 국면(연합뉴스)**

- 외신들은 24일 동해 상에서 북한이 감행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시험발사 소식을 긴급하게 전하며 늘어난 비행거리와 기술 진전에 주목함.
- AFP통신은 이날 오전 북한이 동해 상에서 발사한 SLBM이 과거 시험발사 때와 비교해 진전된 거리인 500km(310마일)를 날아갔다는 한국 합동참모본부의 말을 인용해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함.
- AFP는 “한국 국방부는 그동안 북한의 SLBM 실전 배치까지 3~4년이 걸릴 것으로 말했다”며 “입증된 SLBM 기술로 북한의 핵 타격 위협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고 설명함.

■ **북한 SLBM 고각으로 발사·정상각도면 사거리 1천km이상(연합뉴스)**

- 북한이 24일 동해상에서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정상보다 높은 각도로 발사된 것으로 전해짐.

- 이날 발사된 SLBM은 500km를 비행했는데, 정상 각도로 발사됐다면 사거리가 1천km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군 당국은 판단하고 있음.
- 사드가 40~150km의 고도에서 최대 마하 14의 속도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드의 요격범위 내에 있다는 것이 군 당국의 판단임.

2016. 8. 25.

■ **美전문가 “北, 신포급보다 더 큰 미사일 탑재 잠수함 개발중”(연합뉴스)**

- 북한이 탄도미사일 탑재용으로 개발 중인 ‘신포급’ 또는 ‘고래급’ 잠수함보다 더 큰 잠수함을 현재 개발 중이라는 미국 전문가의 의견이 제기됨.
- 정보분석업체 올소스 애널리시스의 북한 군사문제 전문가 조지프 버뮤데스 연구원은 24일(이하 현지시간) 북한 전문매체 ‘38노스’ 주최 전화 간담회에서 “기존 잠수함보다 더 큰 새 잠수함을 만들고 있으며, (북한에서는) 몇 년 전부터 그런 잠수함을 설계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38노스는 또 신포항 인근 육태동에 조성 중인 새로운 잠수함 기지로 추정되는 시설의 위성사진도 공개함.

■ **北 언급한 ‘전략잠수함’은···SLBM 3발이상 장착 3천급 유력(연합뉴스)**

-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각별한 관심 속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여러 발 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을 건조 중인 것으로 보임.
- 이르면 올해 안에 SLBM을 실전배치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이 신형 잠수함까지 전력화할 경우 북한의 SLBM은 한미 양국을 겨냥한 실질적인 위협으로 떠오를 수 있음.
-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을 실시간 추적하려면 사실상 무한정 잠항 능력을 갖춘 핵추진 잠수함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핵추진 잠수함이 있으면 북한 잠수함을 계속 추적하다가 SLBM 발사 조짐만 보여도 해저에서 격침할 수 있다”고 강조함.

2016. 8. 26.

■ **38노스 “北, 동창리 로켓발사장 경비 강화”(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2년여 동안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서해 로켓발사장 주변에 대한 경비를 강화했다고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25일(현지시간) 밝힘.
- 정보분석업체 올소스 애널리시스의 조지프 버뮤데스 연구원은 이 매체 기고문을 통해 발사장

- 주변에 27km 길이의 외부 경계선과 19km 길이의 내부 경계선이 조성됐고 경계선을 따라
담을 설치하는 등의 활동이 이뤄졌다고 설명함.
- 동창리 로켓발사장은 북한이 지난 2월 장거리로켓을 발사했던 곳임.

Ⅲ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8.22	ICNK, 아르헨티나 '북 인권 행사 개막(자유아시아방송)
	8.23	美·英, 태영호 망명 개입 보도에 '논평 거부'(연합뉴스)
	8.25	국무부, 현학봉 북 대사 소환 보도 관련 "북한 인권 우려"(미국의소리)
	8.26	미국무부 "모든 국가, 北난민·망명신청자 보호에 협력해야"(연합뉴스)
북한인권 내부동향	8.22	北 "탈북 해외식당종업원 돌려보내리" 또 요구(연합뉴스)
	8.24	北 태영호 망명 '후폭풍'...북중 접경지역 탈북 감시 강화(연합뉴스) 日언론 "북한, 망명저지 위해 보위부 비밀조사단 중국에 파견"(연합뉴스)
북한인권 남한동향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8.23	북한 주민 3명 서해 상으로 귀순...신분·경로 등 조사(연합뉴스)
	8.24	연평도 스티로폼 표류 北 주민 구조...탈북여부 조사(연합뉴스)
	8.25	北 당기관 근무 여성, 아들과 함께 탈북...한국행 원해(연합뉴스)
대북지원	8.24	울 상반기 미북 교역, 사실상 전무...'구호·지원' 명목 수출 '0' (미국의소리) 미 NGO, 울 가을 북한에 의약품 지원(자유아시아방송)
	8.25	美 민간단체, 다음달 北에 의약품 지원 계획(연합뉴스)
	8.26	세계기금, 北 말라리아 퇴치 사업에 370만달러 지원(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6. 8. 22.

■ ICNK, 아르헨티나 ‘북 인권’ 행사 개막(자유아시아방송)

- 한국에 기반을 둔 국제인권단체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와 아르헨티나의 인권단체 까달(Cadal)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북한인권 행사가 22일부터 3일간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림.
-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의 권은경 사무국장은 이번 행사는 칠레에서 시작해 아르헨티나, 멕시코 즉 메히꼬로 이어지는 지난 19일부터 오는 26일까지의 중남미순회 북한인권 주간 행사의 일부라고 2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함.
- 지난 19일 칠레 산티아고대학 한국학연구소에서 열린 행사에서 대표단은 칠레 학생들과 함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중국의 역할 그리고 북한의 철통 같은 폐쇄성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인권유린 정보와 통계를 추적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특히 브라나슬라브 마레릭 칠레 국가인권위원장, 칠레 외무성 인권과 과장 등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칠레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했다고 권 사무국장은 밝힘.

2016. 8. 23.

■ 美英, 태영호 망명 개입 보도에 ‘논평 거부’(연합뉴스)

- 미국과 영국 당국이 모두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의 망명 과정에 개입했다는 보도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보도함.
- 미국 국무부의 오리 아브라모위츠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RFA에 “태 공사 망명과 관련된 구체적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앞서 영국 주간지 ‘선데이 익스프레스’는 지난 21일(현지시간) 태 공사 가족이 영국과 미국 당국의 협조 아래 영국 공군기로 독일을 거쳐 한국에 들어왔다고 보도함.

2016. 8. 25.

■ 국무부, 현희봉 북 대사 소환 보도 관련 “북한 인권 우려”(미국소리)

- 미국 국무부는 태영호 영국주재 북한 공사의 망명과 관련해 북한 인권과 탈북자 처우 등 사건의 여파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명함.
-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3일 태영호 공사의 망명 이후 지속 상환인

- 현학봉 주영 대사가 곧 평양으로 소환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번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북한 인권 상황을 깊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힘.
- 또 미국은 탈북자를 보호하고 이들을 위한 장기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유엔 인권 이사회, 유엔난민기구(UNHCR) 등 국제 기구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임.

2016. 8. 26.

■ **미국무부 “모든 국가, 北난민 망명신청자 보호에 협력해야”(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25일(현지시간) 북한 외교관의 잇따른 탈북 사태와 관련, “모든 국가가 자국 영도에서 북한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을 보호하는데 협력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함.
- 미 국무부의 카티나 애덤스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에 이같이 밝힘.
- 애덤스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의 인권상황과 더불어 북한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의 처우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들을 위한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른 국가, 그리고 유엔인권위원회 및 유엔난민기구를 포함한 국제기구와 계속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함.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6. 8. 22.

■ **北 “탈북 해외식당종업원 돌려보내라” 또 요구(연합뉴스)**

- 북한은 22일, 중국 내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다 집단 탈출해 한국으로 들어온 북한 출신 종업원들의 송환을 재차 요구함.
-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최근 대한적십자사에 보낸 편지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함.
- 앞서 통일부는 지난 16일 “탈북 경위 등에 대한 유관기관의 조사를 마친 류경식당 종업원 13명은 지난주 일주일에 걸쳐 순차적으로 사회로 배출됐다”며 “이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신변보호를 위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음.

2016. 8. 24.

■ **北 태영호 망명 ‘후폭풍’…북중 접경지역 탈북 감시 강화(연합뉴스)**

- 태영호 주영(駐英) 북한대사관 공사의 한국 망명을 계기로 북한 당국이 탈북을 막기 위해 북중 접경지역 감시를 강화한 것으로 24일 알려짐.
- 북한 사정에 밝은 대북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태영호 공사의 망명 이후 내부 통제를

- 강화하고 있다”며 “탈북을 막기 위해 북중 접경지역 감시를 강화한 것으로 안다”고 말함.
- 다른 대북 소식통은 “최근 양강도 혜산지역 북중 접경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감시가 이뤄지고 있다”며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이 태영호 공사 탈북 사건 이후 매일 같이 주민 거주 지역에 와 대대적인 정치교양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힘.

■ **日언론 “북한, 망명저지 위해 보위부 비밀조사단 중국에 파견”(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4월 중국에 있는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의 한국 망명 이후 북한 주민의 망명을 막기 위한 비밀경찰 조사단을 중국에 파견했다고 도쿄신문이 북한 관계자를 인용해 24일 전함.
- 신문에 따르면 이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짐. 이와는 별도로 북한은 중국에 체류하는 북한 주민의 사상 동요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노동당 선전선동부 조사단을 파견했다는 정보도 있음.
- 별도의 북한 소식통은 도쿄신문에 “한국인을 포섭하거나, 탈북지원 등 반체제 활동을 저지하는 등의 활동을 위해 무역업자 등으로 위장한 (공작기관인) 정찰총국 요원이 잠복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함.

3. 북한인권 남한동향

■ **특이사항 없음**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6. 8. 23.

■ **북한 주민 3명 서해 상으로 귀순·신분 경로 등 조사(연합뉴스)**

- 태영호(가명 태용호)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비롯한 외교관과 해외식당 종업원 등 북한 내 출신 성분이 좋은 해외 파견자의 탈북이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 북한 주민들이 서해 상을 통해 귀순한 사실이 23일 확인됨.
- 보안 당국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북한 주민 3명이 어선을 타고 평택해양경비안전서 관할인 인천시 관내 해상을 지나다가 평택 해경에 발견됨.
- 인천 용진군 울도에서 충남 서산시 대신항까지인 평택해경 관할 해상을 통해 북한 주민이 귀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2016. 8. 24.

■ 연평도 스티로폼 표류 北 주민 구조·탈북여부 조사(연합뉴스)

- 최근 서해 상으로 북한 주민 3명이 귀순한 데 이어 연평도에서도 북한 주민이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구조됨.
- 24일 연평도 어민들에 따르면 오전 7시 10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북한 주민 A(27)씨가 스티로폼을 잡고 표류하는 것을 군 관측병이 발견함.
- 때마침 이 해역을 지나던 어선이 A씨를 발견하고 약 5분 만인 7시 15분께 A씨를 구조함. 선장은 연평도로 귀향해 군 당국에 A씨 신병을 인계함.
- 보안당국은 A씨가 스스로 탈북했는지, 해양조난사고를 당한 것인지를 조사하며 귀순 의사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2016. 8. 25.

■ 北 당기관 근무 여성, 아들과 함께 탈북·한국행 원해(연합뉴스)

- 북한 함경북도의 지방당 기관에서 근무하던 여성이 최근 북중 국경을 넘어 탈북해 한국행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한 탈북자 단체 관계자는 25일 “50대 탈북여성 A씨가 열흘 전 20대 아들과 함께 북한을 탈출하는데 성공했다”며 “현재 그는 아들과 함께 중국의 안전지역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말함.
- A씨의 탈북은 북한이 태영호 주영(駐英) 북한대사관 공사의 한국 망명을 계기로 탈북을 막기 위해 북중 접경지역 감시를 강화한 가운데 이뤄짐.

5. 대북지원

2016. 8. 24.

■ 올 상반기 미북 교역, 사실상 전무·‘구호·지원’ 명목 수출 ‘0’ (미국외소리)

-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미국과 북한 교역액이 2만3천 달러로 집계됐다고 미국 상무부가 밝힘. 이 같은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교역액 299만1천 달러에 비해 무려 99% 감소한 것임.
-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북한으로부터 미국의 수입은 전혀 없고, 전액 미국이 북한으로 수출한 것임. 통계상으로는 수출로 잡혔지만 대부분 인도적 지원을 위한 것이었음. 이 기간 중 미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간 물품은 실험실 연구장비와 상업용 인쇄물이 전부임.
- 2월부터 4월, 그리고 6월 중 두 나라 사이의 교역은 아예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통상 대북 수출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민간기구가 구호 또는 자선으로 제공한 지원품목 (NAICS 990000)’은 전혀 없었음.

■ **미 NGO, 올 가을 북한에 의약품 지원(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코네티컷 주에 기반한 아메리케어스(Americares)는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올 가을 북한으로 의약품 선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메리케어스는 주로 북한의 평양, 그리고 황해북도, 평안남도, 남포 시 등 7개 지역에 있는 병원과 진료소를 지원하고 있음.
- 아메리케어스의 도나 포스트너 (Donna Postner) 대변인은 대북 의약품 지원의 정확한 날짜는 9월 중 정해질 예정이라고 전함.
- 아메리케어스는 1997년 연이은 홍수와 기근 피해를 입은 북한에 미국의 민간단체로는 처음으로 항공편으로 직접 의약품을 전달하면서 대북지원을 시작했다.

2016. 8. 25.

■ **美 민간단체, 다음달 北에 의약품 지원 계획(연합뉴스)**

- 미국의 인도적 의료지원단체인 아메리케어스(AmeriCares)가 다음 달 북한에 의약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보도함.
- 지원될 의약품은 알레르기 치료제와 항생제, 심장 호흡기 질환 치료제 등으로, 평양과 남포, 황해북도, 평안남도 등에 있는 7개 병원 및 진료소에 분배될 예정이다.
- 아메리케어스는 1997년 미국 민간항공기에 의약품을 싣고 방북한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해옴. 1997년 당시 이 단체의 지원품을 실은 항공기는 한국전쟁 이후 북한땅을 밟은 첫 미국 국적 민항기로 기록됨.

2016. 8. 26.

■ **세계기금, 北 말라리아 퇴치 사업에 370만달러 지원(연합뉴스)**

- 국제 질병 퇴치기구인 '에이즈·결핵·말라리아 퇴치 세계기금'(이하 세계기금)이 북한의 말라리아 퇴치 사업을 위해 올해 370만 달러(한화 41억3천여만 원)를 지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6일 보도함.
- 북한 말라리아 퇴치 사업은 세계기금의 자금 지원을 받은 유엔아동기금(UNICEF)이 현지 주민들에게 모기장을 나눠주고 각 가정에 살충제와 예방 치료약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진행됨.
- 세계기금은 올해부터 2018년 6월까지 북한의 말라리아 퇴치 사업을 위해 88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임.